16일 Market Index
코스피 5668.05 (+113.83)
코스닥 794.78 (+33.96)
금리(국고채 3년) 3.854 (-0.013)
환율(원-달러) 1334.25 (+2.85)

metro 경제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1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6년 10월 19일 월요일

하나금융그룹

원샷 환경평가로 '반도체 양산' 박차

메가특구법 성공의 조건

❶ 환경영향평가 규제 완화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예상
대폭 단축시 2029년 첫 양산 가능
환경단체, 절차 단축에 강력 반발

이재명 정부의 최대 역점 사업이 될 반도체 3대 메가 프로젝트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 반도체 2강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400조원, 총 800조원을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투자하는 만큼, 3대 메가 프로젝트는 국가, 기업, 지역의 명운이 걸린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메가특구법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인 가운데, 환경영향평가 규제 완화·근로시간 제 유연화·전력-용수 인프라 구축 방안·인재 양성 및 정주 여건 조성 방안 등 쟁점이 될 사안을 4회에 걸쳐 들여다본다. 〈편집자주〉

이재명 정가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뒷받침할 입법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메가특구법)에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인·허가 전에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업 성공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특별법에 다양한 특례 조항을 담아 사업 속도를 앞당길 수 있을지가 사업 성패의 관건이 됐기 때문이다.

다만, 환경단체는 환경영향평가 취지를 왜곡해 형식적 절차로 축소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전격전'에 환경영향평가 절차 대폭 축소하나

환경영향평가는 개발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오염이나 환경 파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도입된 제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나눠져 있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광주군공항 이전 부지가 250만평에 달하는 만큼, 개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 전 환경영향평가는 선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 회의 등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주문하면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기준을 축소하는 내용이 메가특구법에 담길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2면에 계속〉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원·달러 환율, 2년여 만에 최저수준

이달 원·달러 환율이 2년 1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원·엔 재정환율 역시 18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18일 서울 중구 한 환전소에 환율이 표시돼 있다. /뉴시스

"기업가치 할인" vs "투자재원 자체 확보"

솔리다임, 美 증시 상장 이견
주주들, 성장과실 몫 감소 우려
BI, 지분율 하락 실적영향 제한적

SK하이닉스의 미국 손자회사인 솔리다임이 내년 미국 증시 상장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 투자자 사이에서는 중복상장에 따른 기업가치 할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솔리다임 상장이 SK하이닉스의 투자 부담을 줄이고 중장기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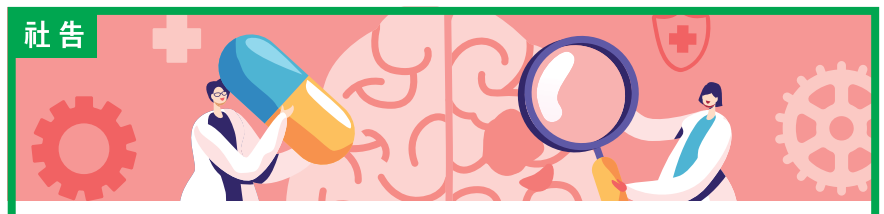
18일 투자은행(IB)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솔리다임이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를 기업공개(IPO) 주관사로 선정하고, 내년 미국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 JP모건체이스, 시티그룹, UBS그룹도 솔리다임의 IPO 주관사단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은 솔리다임이 이르면 내년 IPO에 나설 수 있으며, 기업가치는 최대 1000억 달러(약 134조원)로 평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2020년 인텔의 낸드·SSD사업부를 인수해 2021년 설립한 미국 회사다. 솔리다임이 미국 IPO를 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 AI 데이터센터 구축 경쟁에 따른 메모리 수요 확대가 자리한다. 메모리 수요가 확대되며 2024년 2분기(4~6월)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최근 메모리 부족 사태로 메모리 '몸값'이 올라가며 솔리다임의 기업 가치도 뛰게 됐다. 솔리다임은 올해 8월 미국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인 코어위브와 기업용 SSD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델테크놀로지스, 텐센트홀딩스 등도 고객사로 두고 있다.

〈3면에 계속〉

/허정윤 기자 zelkova@

社告



메트로경제 '2026 제약·바이오 포럼'

'역노화' 세상에 없던 혁신기술 조명

메트로경제와 메트로신문이 오는 10월21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2026 제약바이오포럼'을 개최합니다.

최근 글로벌 제약·바이오 및 헬스케어 시장은 '역노화 및 항노화(Reverse Aging & Anti-Aging)'를 차세대 핵심 성장 축으로 설정하고 빠른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세계 첫 역노화 유전자 치료 임상 진입부터 비만·대사 질환 약물의 노화 지연 적응증 확장, mRNA 세포 재프로그래밍, 자가줄기세포 재생의료에 이르기까지 연구 분야가 급격히 다각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혁신 기술은 단순한 신약 개발을 넘어 바이오 뷰티,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예방 의학, 맞춤형 웰니스 영역으로 빠르게 접목되며 산업 간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역노화 기술은 저속 노화를 넘어 글로벌 바이오 산업의 가장 뜨거운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세상에 없던 새로운 치료제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K-제약·바이오의 차세대 혁신 기술을 집중 조명합니다. 기존 치료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국내외 첨단 바이오 기술의 현재와 미래 가능성을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내외 항노화·역노화 연구개발(R&D) 및 기술 상용화를 선도하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이번 포럼에 독자 여러분과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 행 사 명 : 2026 제약바이오포럼
■ 주 제 : 역노화 및 항노화(Reverse Aging & Anti-Aging)
■ 일 시 : 2026년 10월21일(수) 오후2~5시
■ 장 소 :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문 의 : 2026 제약바이오 포럼 사무국 02)721-9818
■ 이 메 일 : forum@metroseoul.co.kr

metro

다중채무에 고용 한파까지… 청년 부실 우려

대출 7건 이상 청년비율 13.6%
대출액 적지만 절반은 '저신용자'

청년층의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 다중채무 부담에 고용 문제까지 겹치면서 청년들의 상환 여력이 약화되고 있어서다. 통합 상담 체계 구축, 사후관리 강화 등 청년층의 실질적인 재기를 뒷받침하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청년층, 다중채무 비중 전 연령대 최고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청년 부채 현황 채무조정제도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말 기준 대출을 7건 이상 보유한 19~34세 이상 청년층 비율은 13.6%로 집계됐다.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40대(8.5%), 50대(7.5%)의 약 1.6~1.8배, 60대 이상(4.6%)의 약 3배에 달한다.

문제는 규모보다 구조에 있다. 청년층의 대출 보유액은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21.8%, 500만원 미만 21.7%를 기록하는 등 소액 대출에 집중된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대출을 보유한 청년층의 절반가량(49.8%)이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령대의 저신용자 비중이 30%대에 그친 것과는 대조적이다.

연체 지표에서도 청년층 부실이 두드러졌다. 청년층의 90일 이상 장기연체율은 2020년 12월 1.8%에서 지난해 6월 2.3%로 확대되면서 가장 큰 상승폭(0.51%p)을 보였다. 같은 기간 40대는 0.16%p, 50대는 0.14%p, 60대 이상은 0.10%p 상승하는 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이 자산시장 참여에 따른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과 '빚투(빚내서 투자)' 현상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다만, 이는 단순한 투기적 행태가 아닌 구조적 소득불평등과 자산 격차에 대한 청년세대의 위기의식이 반영된 결과라는 진단이다.

◆ 고용 감소, 쉬었음 청년 증가

최근에는 고용 여건까지 악화되면서 청년층의 채무 상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청년 고용률은 66.4%다. 전 분기 대비 0.9%p 상승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0.7%p 하락했다.

〈3면에 계속〉

/안재선 기자 wotjs4187@

메트로 한줄뉴스



▲이 대통령 "국민들 다 환영하는 국무회의 일부 공개…비공개 압박 이해 어려워"
▲한성숙 총리 "남북 대화의 문 열리도록 평화공존 기반 차근차근 다질 것" /사진 뉴시스
▲조국 "김민석, '曺탄핵' 모호한 메시지 발신 멈추고 표결 날짜 내놓길"
▲오세훈 "민주당, 저를 공격할 시간에 국민 삶 들여다보라"
▲김민석, 지역축제서 공연 도중 무대인사 논란에 "가수·관객께 죄송"
▲흉기난동 때마다 "순찰 강화" 외침…현실은 '인력 반토막'

“현대차는 인도의 일부… 월평균 300대, 축제 땐 500대 팔려”

르포

인도 ‘쿤단 현대’

차다 대표, 고객 선호도·수요 체감
인기모델 7~8개월 이상 출고 지연
“현지 생산 확대, 긍정적 작용할 것”



15일(현지 시각)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푸네 차칸 지역의 현대자동차 판매점 ‘쿤단 현대’ 실내 모습. /양성운 기자



‘쿤단 현대’ 서비스센터에서 정비기사가 차량을 점검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현대자동차가 인도 시장 진출 30년을 맞은 가운데 현지 딜러망에서도 브랜드 인지도와 고객 수요 확대를 체감하고 있다. 차량 판매뿐 아니라 정비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대형 딜러숍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안전성과 첨단 사양, 차량 이용 경험을 중시하는 인도 소비자의 변화를 보여주는 현장이다.

지난 15일(현지 시각)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푸네 차칸 지역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판매점 쿤단 현대(Kundan Hyundai) 전시장 규모는 약 155평(512㎡)에 달하며 소형차 i20부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크레타 등 6종이 전시돼 있었다. 특히 이곳은 차량 전시는 물론 차량 정비까지 진행할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구성됐다.

히테시 차다 쿤단 현대 대표는 “현대차는 프리미엄 디자인과 미래지향적인 사양, 신뢰성을 바탕으로 고객들의 선호를 얻고 있다”며 “30년 동안 인도에서 사업을 이어오면서 이제는 인도의 일부이자 국민에게 익숙한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쿤단 현대는 2008년부터 딜러 사업을 운영했으며 차량 전시·판매와 사후서비스(AS)를 함께 제공한다. 차량을 정비할 수 있는 서비스베이 15개를 갖췄으며 2만 개 이상의 부품을 확보해 고객의 차량 유지·관리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신차 판매 이후 정비와 부품 공급까지 아우르는 서비스 역량을 통해 고객의 신뢰와 접점을 강화하고 있다.

쿤단 현대는 월평균 300~350대 수준의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디왈리와 두세라 등 인도 주요 축제 기간에는 500대 이상으로 늘어난다.

차다 대표는 “인기 모델은 고객 수요에 따라 출고까지 7~8개월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며 “차량 구매 시 할부를 활용하는 소비자가 많으며 가족 규모와 소득, 생활방식에 따라 차종을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객의 구매 기준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이동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중요했다면 최근에는 선루프와 커넥티비티, 엔터테인먼트,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등 다양한 사양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SUV 선호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며 현대차 구매자의 평균 연령은 32세로 젊은 고객층과 기존 브랜드 충성 고객이 함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전동화 전환도 진행 중이다. 쿤단 현대의 전기차 월 판매량은 약 15대로 전체 판매의 5% 수준이다.

차다 대표는 “전기차는 총소유비용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초기 구매가격이 내연기관차보다 15~20%가량 높다는 점이 부담”이라며 “다양한 파워트레인과 신차 출시를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 푸네공장 가동에 따른 기대감도 나타났다. 현지 생산능력이 확대되면 차량 공급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고, 지역 소비자와 브랜드 간 유대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차다 대표는 “푸네에서 직접 생산이 이뤄지면서 지역 고객들이 현대차를 더욱 가깝게 느끼고 있다”며 “현지 생산 확대가 판매 기반 강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푸네(인도)=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1면 ‘원샷 환경평가로…’서 계속

‘메뉴판식 특례’ 등 논의 연내 특별법 제정 방침

민주당은 지자체와 기업이 사업 특성에 맞게 필요한 특례를 골라 신청하면 정부가 심의하고 승인하는 ‘메뉴판식 특례’ 구조 등을 비롯해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도 법안 초안에 포함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행정절차가 지연돼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절대로 있어선 안 된다”면서 “환경영향평가도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같은 지역이라면 (기존 평가) 결과를 원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새로 하게 돼도 기간을 대폭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구마모토 TSMC’보다 빠르게

‘꿥’ 건설 속도전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일본 구마모토 TSMC 공장의 경우 입지 발표부터 반도체 양산 시작까지 3년2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일본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용수 사용 허가, 도로 정비 등 복잡한 인·허가를 한 번에 통과시킨 바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평가 기간 단축 및 절차 간소화 평가 ▲권한의 지방 이양 등을 특별법에 담아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줄인 바 있다.

늦어도 2030년 반도체 양산 전망
환경단체 “절차적 정당성 고민돼야”

사업이 진행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의 경우 2008년 도입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으로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4개월로 대폭 단축시킨 바 있다. 정부·여당은 연내 메가프로젝트 특별법을 제정해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완화할 계획이다. 일본 구마모토 TSMC 공장처럼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면 2029년 가을, 늦어도 2030년에는 반도체 첫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절차 단축에 반발하는 환경단체

환경단체는 제도 취지를 왜곡하는 졸속 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녹색연합은 지난 8월11일 낸 성명서에서 “반도체·AI데이터센터 산업은 대규모의 물과 전력을 소비하고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산업”이라며 오히려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연합은 “이미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여기에 더해 별도의 특별법으로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재차 단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형해화하는 이중, 삼중의 규제 완화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했다.

아울러 “산업 경쟁력 강화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물 부족, 온실가스 배출, 지역 갈등이라는 청구서 위에 세워진다면, 그것은 ‘대도약’이 아니라 ‘빚더미’가 될 뿐”이라며 “메가프로젝트는 지금이라도 속도가 아니라 정직한 계산과 절차적 정당성에서 고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두산·두산에너빌리티, 김민철·박상현 부회장 승진

최고재무책임자 중심 인사 단행
두산에너빌, 송용진 COO 선임



김민철 두산 부회장



박상현 두산에너빌리티 부회장

㈜두산 최고재무책임자(CFO)인 김민철 대표이사 사장과 두산에너빌리티 CFO인 박상현 대표이사 사장이 각각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두산과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난 16일 김민철·박상현 부회장 승진 인사를 발표했다.

㈜두산 김민철 신임 부회장은 2006년 ㈜두산 재무분석(FA)팀 상무에서 2011년 경영전략 전무, 2018년 대표이사 부사장, 2020년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해왔다.

박상현 부회장은 2022년부터 두산에너빌리티 대표이사 사장을 지냈다. 2008년 ㈜두산 지주 부문 기업금융프로젝트(CFP)팀 상무, 2013년 두산인프라코어(HD건설기계 전신) 재무관리부문장과 2015년 ㈜두산 지주 부문 부사장, 2018년 두산밥캣 대표이사 등을 거쳤다.

이어 두산에너빌리티는 전략·혁신부문장 송용진 사장을 신임 최고운영책임자(COO)로 선임했다. 송용진 COO는 엔지니어 출신으로 2008년 두산에너빌리티 전략팀장으로 합류해 전력·혁신부문장과 풍력 사업 부문(BG)장을 맡았다.

박상현 부회장 지휘 아래 송용진 COO 주도로 원자력과 가스터빈, 해상 풍력 등 핵심 사업 경쟁력을 높이고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中 반도체 기업 약진… 삼성·SK, HBM·차세대 D램 ‘맞불’

CXMT, 3분기 매출 500% 이상 증가
삼성전자, HBM4E 12단 샘플 공급
SK하이닉스, 3차원 적층 D램 연구

중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힘입어 가파른 실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범용 D램에 이어 차세대 서버용 제품 개발에도 속도를 내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메모리(HBM) 고도화와 차세대 D램 기술 개발을 통해 기술 우위를 유지하려는 모습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 등은 CXMT의 올해 3분기 매출이 1147억~1197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9~61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같은 기간 순이익은 533억 9500만~548억9500만 위안으로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 AI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글로벌 D램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 생산능력 확대 등이 실적 개선 배경으로 꼽힌다.

CXMT는 지난 10일 차세대 D램 셀 구조인 포에프스퀘어(4F²)를 적용한 서버용 DDR5 RDIMM을 연내 출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4F² 는 기존 6F² 구조보다 같은 공정 기준 메모리 셀 면적을 이론적으로 약 33% 줄이는 기술이다. 다만 구체적인 제품 성능과 양산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차세대 메모리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반도체대전(SEDEX 2026)’에서 7세대 HBM인 HBM4E를 나란히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10나노급 6세대(1c) D램과 4나노 파운드리 공정 기반 베이스다이를 적용해 최대 16Gbps의 데이터 전송 속도와 초당 3.6TB의 대역폭을 구현했다. 지난 5월에는 HBM4E 12단 샘플을 고객사에 공급했다.

SK하이닉스도 최대 16Gbps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구현한 HBM4E를 공개했다. 기존 HBM4보다 전력 효율을 20% 이상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 6월 주요 고객사에 HBM4E 12단 샘플을 공급한 뒤 성능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차세대 D램 셀 구조 개발도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국제고체회로학회(ISSCC)에서 4F² 구조를 적용한 16Gb D램 테스트 칩의 읽기·쓰기 동작에 성공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송재혁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 최고기술책임자(CTO) 사장도 지난 14일 행사 현장에서 관련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SK하이닉스 역시 수직 게이트 기반 4F² 기술과 3차원(3D) 적층 D램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HBM 이후를 겨냥한 기술 개발도 진행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AI 연산장치 위에 메모리를 수직으로 쌓아 데이터 이동 거리를 줄이는 ‘zHBM’과 메모리 내부에서 일부 연산을 처리하는 ‘LPDDR-PIM’, 차세대 낸드 솔루션 ‘zNAND-O’를 선보였다. SK하이닉스는 낸드플래시 기반으로 높은 데이터 전송 속도와 대용량 저장 능력을 확보하는 고대역폭플래시(HBF)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샌디스크와 함께 HBF의 첫 표준 규격을 공개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 추격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만큼 CXMT가 서버용 D램에서 실제 양산 수율과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며 “국내 메모리 업체들도 HBM을 비롯한 차세대 기술 개발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태아 산재 인정 '하늘의 별따기'… 입증 부담에 신청조차 막막

태아 산재 신청 12건 중 7건 승인
지난해 직장가입자 유산·사산 6만건
유산·사산·조산 산재 신청 5년간 12건
입증부담·유해인자 범위 개선 촉구



A씨 전시장 운영기획·서비스 매니저. 임신34주 출산.



B씨 대형마트 상품 발주·진열·재고 관리. 임신 27주 출산·출생체중 1,142g. /Chat GPT 생성이미지

임신 중 업무상 유해요인에 노출된 노동자의 자녀가 산재로 인정받기가 사실상 '하늘의 별따기'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업무 관련성 입증과 산재 신청에 따르는 부담, 제한적인 유해인자 범위 등이 산재 신청 및 인정에 장벽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김포시갑)이 지난달 1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공받아 19일 발표한 '태아 산재 등 현황 관련'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근로복지공단이 처리한 건강손상자녀의 최초 요양신청은 12건으로, 이 가운데 7건이 승인됐다. 연도별 승인 건수는 2023년 1건, 2024년 3건, 2025년 2건, 올해 7월까지 1건이다. 위 통계는 최초 요양신청서의 1회차 처리 기준이며, 사고나 출퇴근 재해 없이 모두 질병 사례다.

◆태아 산재 신청 12건 중 7건 승인… 입증·신청 장벽 여전

산재 승인 사례의 주요 진단명은 2023년 무뇌이랑증, 2024년 면역글로불린A 신증(IgA 신증)과 선천성 무신장증·거대결장증이었다. 지난해에는 출생 당시 체중이 각각 1750~1999그램(g), 1000~1249g인 저체중 출산아 사례가, 올해는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사례가 승인됐다.

반도체 노동자 자녀의 질병을 인정하는 과정에서는 조사 단계와 최종 심의의 판단이 달라지기도 했다. IgA 신증 등을 앓는 자녀의 사례에서 역학조사는 업무 관련성을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는 관련 연구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업무 관련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임신 기간 유해 작업환경에 노출된 점 등을 종합해 자녀의 콩팥무발생증과 방광요관역류를 인정하고, IgA 신증도 이들 질환에 따른 만성 염증 등의 영향으로 봤다.

◆직장가입자 유산·사산 지난해 약 6만건… 관련 산재 신청은 5년간 12건 불과

지난해 직장가입자의 유산·사산은 약 6만건에 달했지만, 2022년부터 올해까지 처리된 유산·사산·조산 관련 산재 신청은 12건에 그쳤다. 전체 유산·사산을 업무상 재해로만 볼 수는 없지만, 산재 신청 및 인정 등으로 이어진 사례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가입자의 유산·사산 건수는 5만9878건으로, 같은 해 출산 건수 19만2243건의 31.1%에 해당했다. 출산 건수 대비 유산·사산 비율은 2022년 30.4%, 2023년 30.9%, 2024년 31.3%였다.

다만 이 비율은 전체 임신이 아닌 출산 건수 대비 유산·사산 건수를 나타낸다. 같은 사람이 한 해에 여러 차례 유산한 경우 각각 집계하며, 의료기관을 찾지 않거나 건강보험·의료급여로 청구되지 않은 사례는 빠져 실제 유산 규모보다 적게 집계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2022년부터 올해까지 처리된 유산·사산·조산 관련 산재 신청은 12건으로, 이 가운데 10건이 승인됐다. 승인 사례에는 절박유산도 포함됐다. 전체 유산·사산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해 약 6만건에 이르는 발생 규모에 비춰볼 때 산재 신청과 인정 사례는 극히 드문 셈이다. 다만 올 4월 난임 치료를 위한 병가 사용과 관련해 회사 감사를 받은 뒤 계류유산(태아가 자궁 안에서 사망한 유산)을 겪은 노동자의 산재가 인정되기도 했다. 판정위는 감사에 따른 불안과 심리적 부담, 이후 발생한 출혈, 감사 후 별도 처분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앞서 올 3월에는 화학물질 노출 가능성과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검토한 바이오업체 연구원의 계류유산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입증 부담에 신청도 주저… 노동계 "유해인자 범위 넓혀야"

노동계는 피해를 겪은 노동자가 산재 신청까지 나아가기 어렵게 하는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현재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선임차장은 업무와 건강 손상의 관련성을 당사자가 확신하기 어려운 데다, 유산 사실이 직장에 알려지는 부담도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가 개인적 요인을 들어 신청을 만류하거나 관련 자료 확보에 협조하지 않는 문제도 언급했다.

이 선임차장은 "시행령에 규정된 유해인자의 범위가 협소해 산재 인정 문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행령 개정을 통한 범위 확대를 요구했다. 그는 "유해인자 범위를 좀 더 확대해야 한다"며 "어렵게 도입된 태아 산재 제도가 보다 포괄적인 보호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수 기자

gws0325@metroseoul.co.kr

청년 고용 불안 속 통합 채무상담 체계 필요

›› 1면 '다중채무에… '서 계속

산업별로 살펴보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제조업의 청년 비율은 17.6% 줄어들었다. 가장 큰 감소폭이다. 같은 기간 도매 및 소매업은 13%,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3.6%, 교육서비스업은 2.7% 각각 감소했다.

올해 1월 기준 15~29세 '쉬었음' 청년도 약 46만9000명으로 지난 2021년 1월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청년층의 고용 불안이 지속되면서 안정적인 소득 확보와 채무 상환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실질적인 채무조정제도 필요

일각에서는 현행 채무조정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는 한편, 통합 상담 체계 구축과 사후관리 강화 등으로 실질적인 청년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나원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채무조정제도 이용 전·중·후에 개입이 충분치 않다며"고 "가장 큰 문제는 청년의 상황과 부채 속성을 고려할 때 어떤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줄 종합상담 창구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후 관리를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솔리다임 IPO, 지분율 하락과 성장 효과 관건

›› 1면 '기업가치 할인… '서 계속

솔리다임의 상장은 공정거래법에서 자유롭다. 공정거래법이 증손회사의 경우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해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의 3단 상장만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 제한은 해외 계열사에 적용되지 않는다.

SK하이닉스 주주들이 우려하는 것은 솔리다임의 성장 과실을 외부 투자자와 나눠야 한다는 점이다.

블룸버그 산하 분석기관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는 지난 15일 보고서에서 IPO 조달 자금으로 생산 능력과 연구개발 투자를 늘려 솔리다임의 이익이 더 빠르게 증가한다면 지분율 하락에 따른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고 봤다.

/허정윤 기자 zelkova@



기후위기·전력난에 다시 도는 원전
재생에너지·계통 연계가 성패 가른다



지난 9월 4일(현지시간) 네팔 베트라와티 마을이 대홍수와 산사태로 인해 토사에 덮여 있다. /뉴시스

② 에너지믹스 딜레마

신규 원전 2기, SMR 1기 건설 예정
추가 신규 원전 건설 여부 논의도

2035 NDC, 전력수요 폭증 해결해야
재생에너지 중심 원전 병행 방향
원전 단가 증가, 제약 등 과제 산적

지난 8월 26일, 네팔과 티베트 접경지역을 덮친 대홍수와 산사태의 인명 피해는 두 달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색이 이어지고 있다. 네팔·중국 당국의 가장 최근 집계(9월 초 기준)로는 네팔 1344명·티베트 31명 등 전체 사망자가 1375명에 달하고, 실종자도 네팔 4898명·티베트 530명 등 5429명에 이른다.

조사가 이어지며 원인은 지진이 아니라 랑탕리룽산의 거대한 빙하와 암반이 무너져 내린 사면 붕괴로 좁혀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붕괴 자체를 촉발한 단일 사건보다, 오랜 기간 이어진 고온과 융빙수가 암석 균열과 빙하 바닥으로 스며들며 사면의 안정성을 서서히 갉아먹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기후변화가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재난이라는 것이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이미 사람의 생존을 위협하는 현재진행형 변수가 됐다.

◆ 멈췄던 원전의 시계, 다시 돌기 시작했다

이런 위기감 속에서 한동안 주춤했던 원전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고 있다. 지난해 2월 확정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이미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건설을 못박으며 방향을 틀어놓은 상태다. 여기에 반도체·AI데이터센터 등 메가프로젝트발 전력수요까지 겹치면서, 정부는 12차 전기본에서 추가 신규 원전 건설 여부까지 공론화 테이블에 올렸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무탄소 전원 확대와 첨단산업발 전력수요 급증이라는 두 압력이 동시에 원전을 다시 호출하고 있는 셈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8월 12차 전기본 브리핑에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원전을 함께 인공지능(AI)과 첨단산업의 전원으로 조화롭게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탄소중립, 그리고 메가프로젝트가 요구하는 전력수요 폭증을 동시에 맞춰야 하는 상황이다. 12차 전기본은 이 둘을 하나로 담아내는 작업이다. 무탄소 전원 중심으로 전원믹스를 짜되, 늘어난 수요를 감당할 만큼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상충하는 요구를 동시에 풀어야 한다.

11차 전기본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21.6%, 2038년 32.9%까지 늘리는 한편 신규 원전과 원전 계속운전을 병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발전단가로 보면 원전이 여전히 가장 저렴하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포함하면 태양광과 육상풍력, 해상풍력 순으로 단가가 높아지는 구조다. 다만 이 '원전이 싸다'는 전제도 최근 흔들리고 있다. 기후부에 따르면 핵연료 처분 비용을 재산정한 결과 원전 단가는 기존 kWh당 65원에서 79원으로 올랐다. 부지 확보와 수용성, 건설 기간이라는 현실적 제약도 여전하고, 재생에너지 역시 양적 확대만으로는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학계에서 꾸준히 나온다.

◆ 원전·재생에너지·계통접속 등 복합 난제

정부는 지난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보고한 데 이어, 10월 2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위원장은 갈등관리 전문가인 은재호 한국외대 겸임교수가 맡았고, 원전과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 인사 8명을 더해 위원장 포함 9명으로 꾸렸다. 원전 분야 전문가는 별도 '전문위원회'에 배치해 기술 정보만 제공하도록 하고, 공론화위는 이를 토대로 시민참여단의 숙의 절차를 이끈다. 신규 원전과 SMR을 몇 기 지을지를 직접 묻는 방식이 아니라, 반도체·전기차발 전력수요 증가와 탄소중립 목표를 동시에 충족할 대안 가운데 하나로서 원전이 맡을 '역할'을 국민과 함께 논의하는 방식이다. 위원회는 석 달간 학습·숙의토론과 전문가 공개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 등을 거쳐 12월 권고안을 내놓고, 구체적인 신규 원전·SMR 규모는 이를 바탕으로 12차 전기본 총괄위원회와 기후부가 최종 결정한다.

원전 공론화위, '원전의 역할' 논의
재생에너지 보급 등 복합 난제 여전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완공 시
日 65만톤 용수 필요… 가뭄 등 우려
기후부, 산업부, 한전서 발 맞춰야

다만 이번 공론화의 의제는 어디까지나 '원전의 역할'에 한정돼 있다. 같은 시기에 함께 결정돼야 할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치와 속도, LNG 발전을 과도기 전원으로 얼마나 활용할지, 2040년까지 석탄발전 폐지 이후 생기는 공백을 무엇으로 메울지, 이를 뒷받침할 송전망·용수 인프라 투자 재원은 공론화 테이블에 오르지 않는다. 원전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12월에 마련되더라도, 전원 구성이라는 퍼즐의 나머지 조각인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 ▲계통접속 적체 해소 ▲용수 확보는 공론화와 별개로 12차 전기본 총괄위원회와 기후부·산업부가 따로 풀어야 할 몫으로 고스란히 남는 셈이다. 원전 하나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복합 난제'라는 의미다.

◆ 용수 100만톤 이상 필요… 가뭄시엔 쉽지 않아

에너지믹스 못지않게 속도를 내야 할 과제가 용수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팹 4기가 모두 들어서면 하루 65만톤 안팎의 산업용수가 필요하다. 정부는 영산강·섬진강 유역 댐의 수계를 조정하고 하수 재이용 기술을 도입해 하루 100만톤 이상까지 추가 확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2022~2023년 극한가뭄을 겪은 지역에서는 이 계획이 실제 가뭄 국면에서도 버텨낼지에 대한 의구심이 남는다. 전력망과 마찬가지로 용수 인프라도 산단 가동 시점에 맞춰서가 아니라 선제적으로 투자돼야 하고, 기존 댐 증고·하수 재이용 등 공급 확대책과 함께 가뭄 시나리오별 비상 공급 계획까지 미리 갖춰둬야 한다. 전력과 용수를 별개 사안으로 다루던 과거 접근으로는 메가프로젝트의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야 할 주체는 사실상 세 곳으로 나뉘어 있다. 전기본 수립과 탄소중립 이행을 총괄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반도체·AI 메가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산업통상부, 그리고 발전설비와 송전망이라는 물리적 인프라를 실제로 짓고 운영하는 한국전력이다. 세 주체의 시계가 어긋나면 아무리 정교한 계획도 현장에서 지연되거나 충돌한다. 산업단지 유치는 산업부가 발표하고, 그 전력을 대는 송전선로 인허가와 건설은 한전과 지역 주민 수용성 문제로 넘어가며, 탄소중립 목표는 기후부가 별도로 관리하는 지금의 구조에서는 어느 한 곳이 속도를 내도 다른 곳에서 발이 묶일 수 있다.

방향은 이미 나와 있다. 전력수요 증가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이 됐고, 탄소중립 목표 역시 후퇴할 수 없는 국제적 약속이 됐다. 에너지믹스는 원전 공론화의 12월 권고안을 출발점 삼아, 공론화 테이블에 오르지 않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와 LNG 과도기 활용 방안까지 한데 묶어 12차 전기본에 확정하는 일이 남았다. 용수는 전력망과 마찬가지로 선제 투자와 비상 공급 계획을 동시에 갖추는 일이 남았다. 기후위기가 다시 돌려세운 원전의 시계는 돌기 시작했지만, 그 시계가 재생에너지·용수·송전망이라는 나머지 톱니바퀴와 맞물려 돌아가야 비로소 복합 난제가 풀린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4일 충북 청주시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고 있다. /기후부



부산 기장군이 지난 6월 0.7GW급 국내 첫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의 건설 후보지로 선정된 가운데 기장군의 한 방파제를 지나는 시민 뒤로 고리원전 1~2호기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최고경 마라토너?
세계 최고의 마라토너입니다
1955년생 마라토너 신행철
50대 중반, 뒤늦게 달리기 시작했지만
꾸준히 자신만의 길을 달려온 끝에
만 71세의 나이로 풀코스 마라톤
70대 세계 신기록을 세웁니다
도전하기에 늦은 나이란
없으니까요
나이를 넘어 자신의 한계를 새롭게 써가는
신행철 마라토너의 빛나는 질주를 응원하며
대한민국 모든 시니어의 골든라이프에
KB가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Korea Better
KB금융그룹
M 70 5643
KOR
| 세계를 휩쓴 1955년생 마라토너, 신행철 |

KB 금융그룹

민생 앞세운 與 vs 실정 파고드는 野… 국감 막바지 격돌

법사위, 공소청·검찰개혁 쟁점
서울·경기 현안 놓고 공방 예상
청와대 국감, 마지막 승부처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관광공사 등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가 비어있다. /뉴시스

국정감사가 3주차에 접어들면서, 여야가 막판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 목표였던 '민생'에 집중하는 한편, 야당의 선 넘는 공세엔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생·경제 분야의 주요 실정을 드러내며 국감을 '야당의 시간'으로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19일부터 진행되는 국감 3주차엔 주요 부처의 장관을 다시 국회로 불러 주요 현안을 다시 점검하는 종합감사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정돼 있다. 지난 6일 시작된 국정감사는 오는 27일 대부분 상임위원회에서 일정을 마무리한다.

주목되는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다. 법사위는 오는 22일 공소청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폐지 이후 공소청에 대한 첫 감사가 이뤄지는 만큼 형사사법체계가 검찰청 폐지 이후 안정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따져 물을 계획이다.

민주당이 국정감사 이후 이재명 대통령 재판 관련 '조작기소특검법'을 추진한 만큼, 국민의힘은 특검법 추진의 문제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가능성을 두고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오는 18일엔 서울광역공소청과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등을 감사하고 26일엔 법무부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서 법사위가 뜨거웠던 만큼, 종합감사 등에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법관 재제청 논란을 두고 논리 대결이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재경경제위원회는 20일 한미전략투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을 감사한다. 22일엔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관세청, 23일엔 기획예산처, 한국은행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치른다.

정무위원회는 19일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등을 감사한 이후 22일에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돌입한다. 국민의힘에선 '삼전닉스 단일종목 ETF(상장지수펀드)' 사태의 장본인을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지목하며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의 동의를 얻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22~23일에 국정감사를 통해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적절성과 반도체 3대 메가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질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1반과 2반으로 나뉘어 서울시와 경기도를 감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를 두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오세훈 시장은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을 경찰에 넘겼다고 책임까지 넘길 생각은 말라"며 "비위 의혹을 보고받고도 수사의뢰까지 1년 넘게 걸린 이유부터 시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국가직 소방 공무원에 대한 '재정 빨대' 논란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국민의힘의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 지사를 향해 "재정 빨대라는 극악한 용어로 소방공무원들의 순수한 희생정신을 폄훼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국정감사는 3주차를 지나 오는 30일에 열리는 청와대 국정감사로 대미를 장식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벌써 충돌 중인데,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알려진 김 실장을 증인 채택하려고 했으나 당시 총무비서관이었던 김 실장을 국감 출석 관례가 없던 제1부속실장으로 보직 이동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하는 등 이른바 '인사 참사' 사태를 두고 청와대의 인사 라인을 점검해야 한다며 김 실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조희대 탄핵 꺼낸 與… 野 "탄핵 국감" 반발

민주당, 탄핵 포함 모든 가능성 논의
실제 탄핵 추진 여부는 미지수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논의를 공식화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쟁 국감(국정감사)'을 넘어 '탄핵 국감'을 만들고 있다면서 강력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내년 6월까지로 8개월이 채 남지 않은 데다, 실제로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의결까지 추진할 지는 미지수다. 또 국민의힘으로서는 실제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경우 여론전 외에는 저지할 방안이 없다.

18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민석 대표는 지난 16일 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서 "이미 탄핵의 티읕(ㅌ)자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며 "모든 사안과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앞서 김 대표는 열흘 사이 세 차례에 걸쳐 조 대법원장에 대한 발언을 이어갔으며, 그 수위도 올라갔다. 지난 7일 김 대표는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마지막 도리'라고 자진 사퇴를 요구했고,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선 '자진 사퇴의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다'라며 경고성 발언을 했다. 그리고 이틀 전에는 '탄핵'이라는 단어를 꺼낸 것이다.

민주당은 이에 자진사퇴 촉구 외에도 탄핵소추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지난 16일 부산 일정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대표도 국감을 지나면서 조 대법원장의 행태는 도저히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봤다"면서 김 대표의 발언이 국감 전과 기조가 달라졌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감을 거치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탄핵 추진 근거도 생겼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6일 대법원 국감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해 논란이 일었다. 대법관 격려금 지급 논란에 대해 '대법원장이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는 해명은 지난 12일 감사원 국감에서 김호철 감사원장이 '격려금의 지급 주체는 기관장'이라고 답하며 '거짓 해명'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탄핵 추진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조 대법원장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탄핵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조희대에게 스포트라이트를 주는 효과와 같은 문제들이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탄핵 추진으로 인한 지지층 결집만이 아니라 전반적은 국민 여론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아직 존재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탄핵 추진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라고 맞받았다. 민주당이 탄핵을 정쟁으로 활용하며 장기전으로 끌고가, 지지층 결집을 꾀하려고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대표는 탄핵 추진 여부를 조속히 결론 내리라"면서 "사법부와 대한민국의 운명을 본인들의 정치적 볼모로 잡아두지 말라"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김 대표는 정쟁 국감의 차원을 넘어 탄핵 국감을 만들고 있다"며 "본인들이 초래한 민생 파탄과 외교·안보 위기에서 국민의 관심을 돌리고 지지층을 다시 결집시키기 위해 탄핵이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이며, 정책과 실력으로 위기를 타개하기보다 탄핵이라는 비상수단을 지지율 반전에 동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예진 기자 syj@

정점식 "전작권, 시기 아닌 능력이 기준"

〈국힘 원내대표〉

"전작권 전환 일정 재검토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전작권 전환은 시기가 아니라 능력이 기준이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아마추어 맹동주의가 국가의 안보까지 망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6 국정감사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전작권 현안을 대통령 임기 시간표에 억지로 맞추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며 "미국과의 충분한 협의하에 전작권 전환 일정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4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조기 전환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고 언급하며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한반도의 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미국의 시각을 반영한 발언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작권 전환 그 자체로 안보의 목적이 될 수 없다"며 "확고한 한미동맹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유사시 전쟁 승리와 작전 수행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안보의 최종 목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작권이 곧 주권이라는 주장은 편견 어린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며 "80년대 운동권이 남한은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라고 주장했던 시대착오적 이념의 잔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논의에 대해서도 "정쟁 국감의 차원을 넘어 탄핵 국감을 만들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정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의 대표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논의하겠다고 공식 선언하면서 국감 전체가 탄핵의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며 "정책과 실력으로 위기를 타개하기보다는 국가기구의 정상적인 가동을 멈춰세우는 탄핵이라는 비상수단을 지지율 반전에 동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는 "본인이 내뱉은 발언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 조속히 결론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사법부와 대한민국의 운명을 본인들의 정치적 볼모로 잡아두지 말라"고 경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둘러싼 민주당의 대응도 문제 삼았다. 그는 "민주당은 김용범 정책실장 등 이 정부의 주요 실정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증인 채택을 원천 거부했다"며 "특히 정무위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해 우리 당이 일반 증인 채택을 요구한 39명 중 단 한 명도 수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추미애 경기지사의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발언에 대해서는 "재정 빨대라는 극악한 용어로 소방공무원들의 순수한 희생정신을 폄훼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추 지사가 전날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사과한 데 대해서도 "남이 사과하라고 해서 사과하는 것은 진정한 사과라고 볼 수 없다"며 "자신의 언행이 소방공무원의 자긍심을 얼마나 훼손했는지 생각·반성하고 나오는 것이 진정어린 사과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경수 기자 gws0325@

민주당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 재점화

국감 후 당헌당규 따른 후속조치
정청래 전 대표 측 "유출 경위 밝혀야"

더불어민주당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인들이 집단으로 입당했다는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이 재점화되고 있다. 당 지도부는 국정감사 이후 본격적으로 해법을 찾을 방침인 가운데, 잠재된 갈등이 터져나오는 계기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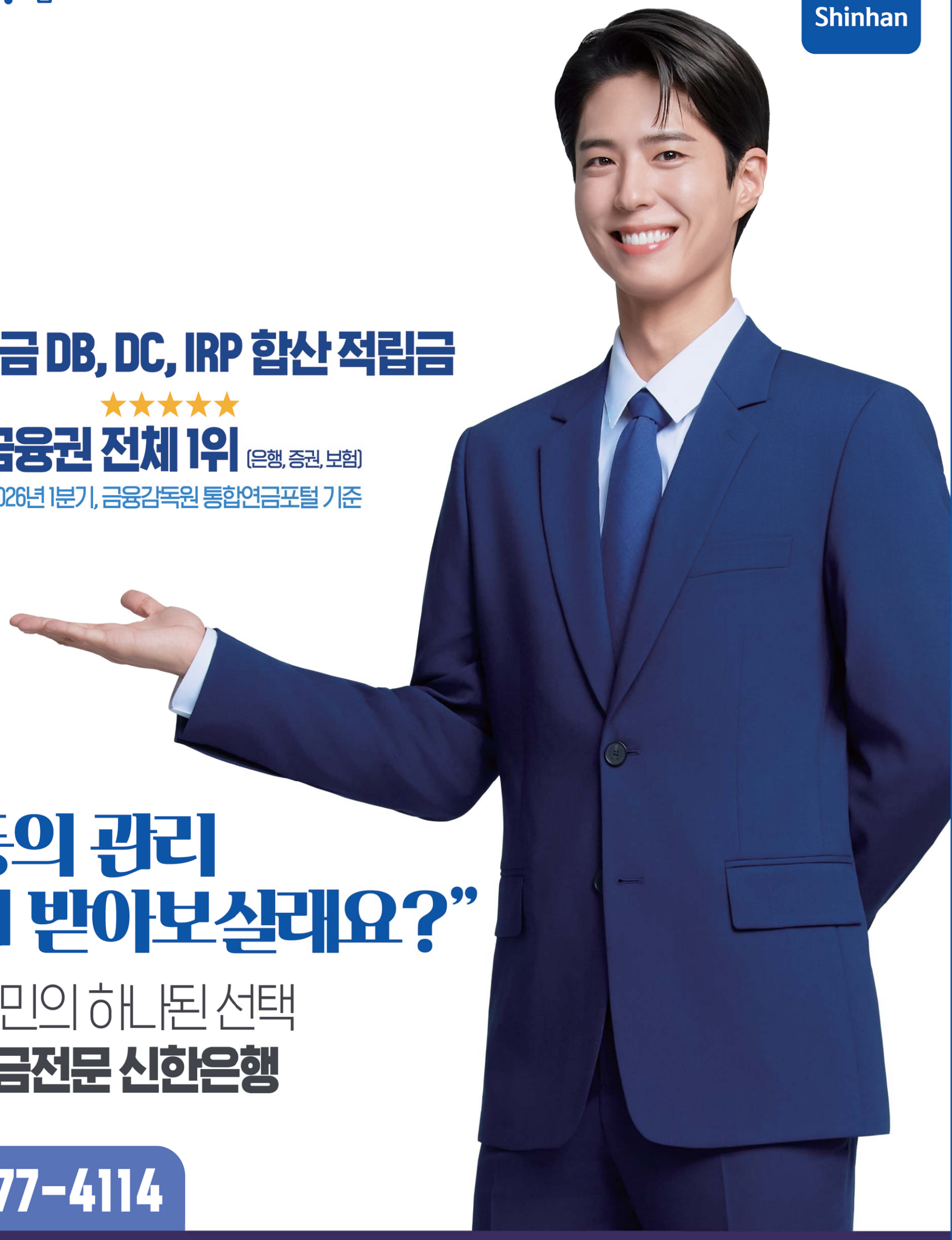
18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민석 대표는 지난 14일 민주당TV 유튜브 방송 '민티07'에서 최고위가 관련 기구로부터 '신천지 집단 당원 가입' 정황을 보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국감 기간인 점을 고려해 본격적인 논의는 국감 종료 이후 의혹을 정확하게 검증하고 당헌당규에 따른 후속조치를 할 생각이다. 후속조치에는 당 차원의 조사를 넘어 수사 의뢰까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청래 전 대표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비공개 보고 내용이 유출된 경위, 또 '반·분·신 3자 비밀연합' 주장의 진위 여부 등을 제대로 밝히고, 허위일 경우 책임 지라는 입장이다. 친청(친정청래)계인 최민희 최고위원은SNS에 "진상규명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누가 왜 신천지를 가지고 언플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예진 기자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Shinhan



퇴직연금 DB, DC, IRP 합산 적립금

★★★★★

금융권 전체 1위 (은행, 증권, 보험)

*2026년 1분기,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기준

"1등의 관리 한 번 받아보실래요?"

우리 국민의 해나돈 선택

퇴직연금전문 신한은행

퇴직연금 고객센터 | 1577-4114

※- (DC, 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DB)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개인형IRP의 수수료는 후취 연 0% ~ 0.45% 입니다. (수수료에 대한 상세 내용은 운용/자산관리 계약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중도해지 수수료는 없습니다. 단,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 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시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과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로 과세되는 등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은 근로자 퇴직급여법상 퇴직급여 특별중도 인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당사는 해당 퇴직연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①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를 참조하시거나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광고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26-01741호 (2026.04.15 ~ 2027.04.14).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 2026-11660-1호 (2026.04.15 ~ 2027.04.14)

자산관리 전문은행 신한은행

황병우 號 지속성장 기반 마련, 체질개선 성과… 연임 '청신호'

iM금융그룹

지주 3분기 순이익 1545억 예상
전년 1225억 대비 26% 늘어나
대출 성장·건전성 개선 동시추진
금융권, 황병우 회장 연임에 무게


황병우 iM금융그룹 회장.


대구 iM뱅크 제2본점. /iM금융

질적 성장을 바탕으로 iM금융의 체질개선 전략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금융권 전반의 대출 건전성이 악화하고 불확실성도 확산하는 가운데, 계열사별 수익구조 개선과 우량자산 중심의 자산 포트폴리오 재편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iM금융의 전략이 성과를 보이면서 내년 3월 임기가 종료되는 황병우 iM금융 회장의 연임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장은 iM금융지주의 3분기 지배주주기준 순이익 전망치를 약 1545억원 수준으로 예상한다. 이는 작년 3분기의 1225억원과 비교해 약 26% 늘어난 수준이다. 3분기 누적 순이익은 약 4501억원으로, 전년 동기(4317억원) 대비 4.2%의 성장이 예상된다. iM금융은 지난 2024년 시중금융 전환 이후 '양적성장'보다 '질적성장'을 우선시하면서 매출 성장세가 더뎠는데, 신규 영업 전략의 성과가 가시화하면서 매출이 늘었다는 평가다.

앞서 황병우 iM금융그룹 회장은 지난 2024년 3월 취임 당시 '단기 성과주의에 매몰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성과 창출'을 목표로 제시했다. 당시 지방금융그룹이었던 iM금융(옛 DGB금융)이 시중금융그룹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었던 만큼, 계열사 전반의 강도 높은 '체질개선'을 통해 독자적인 영업 전략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였다.

◆ iM뱅크 '리밸런싱'…'니치마켓' 공략

지난 2024년 5월 국내 최초로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iM뱅크는 '리밸런싱'을 우선시했다. 우량차주 중심으로 신규 대출을 공급해 자산 건전성을 개선하는 한편, 여신 심사체계를 고도화해 대출 공급 체계도 다변화했다. 대출 성장과 건전성 개선을 동시 추진하면서 올 상반기 iM뱅크의 원화대출 잔액 규모는 60조원을 넘겨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건전성 지표도 개선됐다. 올해 6월 말 기준 iM뱅크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94%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관리됐으며, 연체율과 대손비용률은 전년 대비 낮아졌다. 금리 상승세와 불경기 장기화로 올해 상반기 은행권의 건전성 지표가 전반적으로 악화하는 가운데 거둔 성과다.

시중은행 전환 이후 핵심 전략으로 부상한 PRM(기업금융전문가)도 성과를 확대하고 있다. PRM은 금융권 지점장급 퇴직인력을 고용해 단독 영업이 가능한 '1인 기업금융 지점장'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전문성과 방대한 인적 네트워크를 확보한 퇴직인력을 활용하는 만큼, iM뱅크 소속 PRM의 1인당 생산성은 일반 행원 대비 약 3배 수준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iM뱅크 소속 PRM이 공급한 전체 여신 잔액은 총 5조7817억원으로, 1년 만에 약 32% 늘었다. PRM이 공급한 여신의 연체율은 전체 은행 여신과 비교해 절반 이하 수준을 기록해 건전성 면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iM뱅크는 PRM 제도를 적극 확대해 기존 시중은행이 공략하기 어려운 '니치마켓(틈새시장)'을 적극 공략 중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매출을 위한 자금 조달 구조도 개선했다. 시중은행 전환 이후 비대면 영업을 적극 확대하고, 신규 자금을 유치한 결과다. 올 상반기 iM뱅크의 총수신 규모는 71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저원가성 자금'으로 분류되는 핵심예금 비중도 지난해 말과 비교해 6.7%포인트(p) 높아진 38.3%까지 올랐다.

◆ '질적성장' 가시화…연임 '청신호'

'질적성장'을 우선시한 iM금융그룹의 전략이 성과를 거두는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황병우 현 iM금융그룹 회장의 연임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황 회장의 첫 임기가 오는 2027년 3월로 종료되는데, iM금융지주가 9월부터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돌입해서다.

금융권에서는 황 회장의 연임 도전을 확실시하고 있다. 특히 iM금융지주는 지난 8월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자격요건을 외부에 공개했는데, 황 회장은 연령을 비롯한 필수적인 지원 요건에 부합한다.

금융권에서는 황 회장의 연임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iM금융이 지난 2024년 시중금융으로 전환하면서 전략의 지속성을 위해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인물이 필요하며, 황 회장의 경영 전략의 성과도 가시화하고 있어서다. 특히 임추위가 공개한 요건에 ▲대내외 신망 ▲리더십과 그룹 비전 등의 항목이 포함된 만큼, 황 회장은 높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iM금융 회추위는 현재 내부·외부 후보군으로 구성된 롱리스트(1차 회장후보군)을 검토중으로, 오는 11월 숏리스트(2차 회장후보군)를 확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조강래 iM금융 회추위 위원장은 "성공적인 시중금융그룹 안착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최적의 후보를 추천해 회추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라고 임추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해킹·정보유출 핵심 쟁점… 5대 은행장, 국감증인 출석

보안 취약점·대응체계 질의 예상
경영진 관리감독 책임도 물을 듯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장

5대 시중은행장이 4년 만에 국정감사 증인석에 나란히 앉는다. 지난 2022년 대규모 횡령 사고로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면 올해는 잇따른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금융보안 체계와 경영진의 관리 책임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18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은 오는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정무위는 지난 8일 전체회의에서 금융권 해킹 사고를 점검하기 위해 이들 은행장에 대한 증인 출석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5대 은행장이 국감 증인으로 함께 채택된 것은 횡령 등 금융사고와 내부통제 문제가 쟁점이 됐던 2022년 이후 4년 만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최근 은행권에서 잇따라 발생한 해킹 공격의 경위와 대응 과정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신한은행에서 고객정보 유출이 확인된 데 이어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다.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 역시 공격을 받았지만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특히 공격 과정에서 인공지능(AI) 기반 자동화 도구가 활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은행권의 기존 보안체계가 새로운 공격 방식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지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다. 신한은행 공격에 이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서버에서는 AI 기반 자율형 침투 도구와 관련된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감에서는 은행별 보안 취약점과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비교하는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고 발생 전 보안 점검과 취약점 개선이 충분히 이뤄졌는지, 사고 인지 이후 금융당국 보고와 고객 통지 등 후속 조치가 적절했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무엇보다 은행장들이 직접 증인석에 서는 만큼 정보보호에 대한 경영진의 관리·감독 책임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이 보안 투자와 내부통제 강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음에도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질의도 예상된다.

금융사기 예방 역량 역시 시험대에 오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대 은행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 포착돼 임시 조치된 거래 가운데 실제 사기로 확인된 거래는 876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4343건보다 4417건(101.7%)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5대 은행의 FDS가 포착한 의심 거래는 약 111만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이체 지연 등 임시 조치가 이뤄진 거래는 15만7810건이다

은행권은 국감을 앞두고 사고 경위와 재발 방지 대책, 고객 피해 보상 절차 등을 점검하고 있다.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문제 외에도 상장지수펀드(ETF) 불완전판매, 가계대출 관리, 이자이익, 생산적·포용금융 등 은행권 현안으로 질의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에는 횡령 등 내부 직원에 의한 금융사고를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외부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응하는 보안 역량이 중요해졌다"며 "금융보안이 단순한 전산 관리 차원을 넘어 경영진이 직접 챙겨야 할 핵심 리스크로 자리 잡은 만큼 이번 국감에서도 실질적인 예방 대책과 책임체계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KB리브모바일

'KB글로벌 스타' 출시 외국인 통신 편의 지원

KB국민은행은 이동통신서비스 KB리브모바일이 외국인 고객의 통신 이용과 국내 생활 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외국인 전용 요금제 'KB 글로벌 스타(Global Star) 7GB+'를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KB 글로벌 스타 7GB+'는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외국인 고객을 위한 비대면 전용 요금제다. 1만원대의 월 기본료(1만9900원)에 월 7GB의 데이터를 제공하며, 기본 데이터 소진 후에도 최대 3Mbps 속도로 데이터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영업점 방문 없이 KB리브모바일 앱과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외국인 고객의 가입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외국인 단체상해보험을 요금제 기본 혜택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요금제 가입 고객에게 '외국인요금제 단체상해보험 서비스'를 12개월간 무료로 제공하며,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시 최대 500만원을 비롯해 골절·화상·상해수술 등을 보장한다.

KB리브모바일은 요금제 출시를 기념해 연말까지 이벤트도 진행한다. 해당 요금제로 신규 또는 번호이동으로 개통한 만 19세 이상 외국인 고객 중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환전 및 해외송금 등에 이용 가능한 'KB금융쿠폰' 3만원을 제공한다. 외국인 단체상해보험 및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KB리브모바일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요금제가 외국인 고객의 통신비 부담을 덜고 국내 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고객의 다양한 생활 니즈를 반영해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우리금융, 청주에 두 번째 '굿윌스토어'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 매장 오픈

우리금융그룹이 지방거주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해 발달장애인 고용 사업장 '굿윌스토어'의 청주지역 내 두 번째 점포를 열었다.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지난 15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서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 매장 '굿윌스토어 밀알청주흥덕점' 개점 기념식을 개최했다.

'굿윌스토어'는 기업과 개인이 기부한 물품을 판매하고 그 수익으로 발달장애인을 고용하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다. '밀알청주흥덕점'은 지난해 9월 문을 연 '밀알청주상당점'에 이어 청주 지역 내 두 번째이자 우리금융이 지원한 전국 18번째 매장으로, 지역 발달장애인의 일자리와 자립을 지원한다.

우리금융은 지방 거주 발달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해 굿윌스토어 건립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울산, 대구, 안산, 청주 등에 이어 올해 하남, 전주, 청주 등에 신규 매장을 열었으며, 오는 11월에는 충남 천안에도 매장을 개점할 예정에 있다.

신건우 우리금융미래재단 과장은 "지역 발달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전국 각지에 굿윌스토어를 확대해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로봇이 조립하고 AI 점검… 현대차·기아, '자율운영공장' 윤곽

21일까지 '이포레스트 테크데이'
200여건 제조 신기술 공개·시연
"사람은 더 가치 있는 일에 집중"


도어 가니시 자동 장착 기술.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자동차·기아가 인공지능(AI)과 로봇을 활용해 자동차 생산 공장의 조립·검사·물류 공정 자동화를 확대하고 있다. 생산 데이터를 연결해 공장이 스스로 판단하고 운영을 최적화하는 '자율운영공장'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현대차·기아는 19일부터 21일까지 경기 의왕연구소에서 '이포레스트 테크데이 2026'을 열고 200여 건의 제조 신기술을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 16일 열린 미디어 초청 행사에서는 AI와 로봇을 활용한 주요 제조 기술의 작동 과정을 공개했다.

현장에서는 로봇이 자동차 문 아래쪽에 부착하는 도어 가니시를 자동으로 장착하는 공정이 시연됐다. 로봇 팔이 부품을 차체에 가져다 댄 뒤 미세한 진동으로 19개 클립의 위치를 맞췄다. 이어 두 차례에 걸쳐 부품을 눌러 고정하고 센서로 들뜸 여부까지 확인했다. 그동안 작업자가 허리를 숙여 직접 부품을 장착했던 공정이다. 해당 기술은 2027년 12월 기아 광주1공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외관 검사 구역에서는 AI로 차량의 미세한 흠집을 찾아내는 기술을 공개했다. 터널형 검사 장치는 차량 한 대당 약 5000장의 초고해상도 이미지를 촬영해 결함의 위치와 크기를 분석한다. 현대차·기아에 따르면 국내외 공장에 설치된 비전 검사 시스템의 95% 이상이 외부 솔루션에 의존하고 있다. 양사는 검사 장비와 알고리즘을 자체 개발해 품질을 높이고 유지·관리 비용을 줄일 계획이다.

물류 로봇은 하드웨어와 주행 소프트웨어를 표준화해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로봇이 부품 운반용 팔레트를 싣고 다음 공정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시연했다. 표준화를 통해 제작 비용을 약 30% 줄이고 충전 시간도 기존 2시간에서 12분 수준으로 단축했다. 이 기술은 기아 화성 EVO 웨스트 공장과 현대차 울산공장 등에 적용을 추진 중이다.

가상 공간에서 차체 위치가 바뀌자 로봇의 이동 경로도 자동으로 다시 계산됐다. 실제 공장을 가상 공간에 구현한 디지털 트윈 시연이다. 현대차·기아는 엔비디아와 협업해 로봇의 움직임과 충돌 가능성을 가상으로 검증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신차 생산 라인 구축에 필요한 시운전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현대차·기아는 이 같은 제조 기술을 국내외 공장으로 확대하고 AI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공장 운영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단순 반복 작업뿐 아니라 작업 난도가 높거나 위험한 공정까지 로봇의 활용 범위를 넓힌다. 작업자는 설비 관리와 품질 개선 등 판단이 필요한 업무에 집중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적으로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MGICS)를 미래 제조 기술의 실증 거점으로 활용한다. 2030년까지 HMGICS에서 가상 환경 기반 자율화 제조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2032년 이후 들어설 신공장에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자율화 기술을 본격적으로 적용한다는 목표다.

최영태 현대차·기아 제조솔루션본부 E-FOREST센터장 상무는 "사람은 더 안전하고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고, 데이터와 AI는 공장을 더욱 유연하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도록 돕는 제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승혁 기자
sh95@metroseoul.co.kr

AI 반도체용 유리기판 상용화 경쟁 치열

삼성전기, 고객사 패키지 검증 진행
LG이노텍, 파일럿 설비 구축·가동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이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용 유리기판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기업들도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고객사 검증에 나서면서 국내 업체들의 기술 경쟁력 확보와 공급망 구축의 중요성이 커지는 분위기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세종사업장에서 개발 중인 유리기판의 자체 신뢰성 검증을 마치고 실제 고객사 반도체 칩을 결합한 패키지 검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복수의 글로벌 기업과 개발 협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2027년 말 생산라인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본격적인 상용화는 2028년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기가 개발 중인 유리기판은 가로·세로 각각 100㎜ 크기로 전해졌다. 전력과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회로층이 20개 이상 구현됐으며, 전력 공급 안정화 등을 담당하는 집적수동소자(IPD)도 80개 이상 내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LG이노텍도 유리기판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혁수 LG이노텍 사장은 지난 1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전자전(KES 2026)에서 구미사업장에 파일럿 설비를 구축해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개발 단계로, 실제 상용 공급은 2028년께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리기판은 기존 유기 소재 반도체 패키지 기판의 코어를 유리로 대체하는 기술이다. AI 반도체에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여러 칩을 집적하면서 패키지 크기가 커지고 회로 구조도 복잡해지고 있다. 유리는 기존 유기 소재보다 열에 따른 변형이 적고 표면 평탄도가 높아 대면적 기판에 미세 회로를 구현하는 데 유리하다.

국내 업체들이 기술 검증에 나선 가운데 중국 기업들의 추격도 빨라지고 있다.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 BOE는 올해 상반기 월 1000장 규모의 유리기판 파일럿 라인을 구축하고 고객사 평가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층 구조의 시제품을 개발해 고객사에 샘플을 제공했으며 일부 신뢰성 시험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WG테크도 자회사를 통해 연간 10만㎡ 규모의 유리관통전극(TGV) 기판 생산라인을 구축했다. 향후 생산능력을 연간 100만㎡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두 업체 모두 본격적인 대량 양산에 진입한 것은 아닌 만큼 고객사 검증과 수율 확보가 향후 상용화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처럼 업체별로 상용화 준비가 진행되는 가운데 양산 수율과 고객사 인증이 시장 경쟁력을 좌우할 주요 변수로 꼽힌다. 유리기판은 TGV 공정에서 발생하는 균열과 회로층 박리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안정적인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증권가에서도 수율 확보와 고객사 수주 여부를 유리기판 상용화의 핵심 변수로 꼽고 있다. 교보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유리기판의 양산 수율을 75~85% 수준으로 추정했다. 기존 유기기판의 90~95%보다 낮은 수준으로, 고객사 제품 평가가 실제 대규모 발주로 이어질지가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업계 관계자는 "유리기판 상용화의 핵심은 안정적인 수율 확보와 고객사 인증"이라며 "중국 업체들이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들도 기술 경쟁력과 양산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삼성중공업, 3분기 영업익 45% 증가 전망

증권가, 매출 3.1조·영업익 3450억 추정

삼성중공업이 고선가 선박의 매출 반영 확대에 힘입어 3분기에도 수익성 개선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18일 IBK투자증권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의 3분기 연결 매출액은 3조1562억원, 영업이익은 3450억원으로 추정된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9.8%, 44.9%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전분기보다 6.2% 늘어날 전망이다. 2024년 이후 수주한 고선가 선박의 매출 비중 확대와 환헤지를 통한 환율 변동 영향 축소가 주요 요인이다.

삼성중공업은 수익성 중심의 선별 수주와 생산 효율화에 주력하고 있다. 글로벌 선사 2곳에서 수주한 원유운반선 8척은 설계·주요 장비 조달을 직접 맡고 건조는 싱가포르 팍스오션에 위탁해 생산 유연성을 높인다. 거제조선소에는 10조원을 투자해 스마트 생산체계를 고도화하고, 설계·용접 자동화와 AI·로봇 기술 도입으로 원가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양플랜트 분야에서는 글로벌 FLNG 시장에서 확보한 수주·건조 경쟁력을 바탕으로 추가 일감 확보와 독자 기술 사업화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6월 코랄 2호기와 델핀 1호기 등 약 44억달러를 수주한 데 이어 델핀 2호기와 웨스턴 프로젝트 추가 수주를 추진 중이다. 증권가는 수주 성사 시 오는 2030년까지 건조 물량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한다. 기존 수주 물량의 건조가 본격화하면서 DS투자증권은 2027년부터 FLNG 연매출 3조2000억원을 전망했다.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 정산도 수익성 개선 요인이다.

삼성중공업은 자체 액화시스템 'SENSE'의 FLNG 적용과 가스엔텍과의 기술 라이선스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풀크럼 LNG와는 FLNG 시장 공동 공략을, 제라아메리카스와는 하와이 연안 부유식 LNG 저장·재기화설비(FSRU) 사업 협력을 추진 중이다.

신규 성장동력인 부유식 데이터센터(FDC) 상용화도 추진 중이다. 미국 무스테리안의 500MW 규모 '프로젝트 제우스'와 관련해 50MW급 FDC 2기의 설계 계약을 체결했으며, 증권가는 이르면 4분기 EPC(설계·조달·시공) 본계약을 예상한다. 거제조선소 2도크에서 건조해 오는 2028년 상반기 가동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애플, 아이폰 신제품 온도차… 듀오 '예약소진' 프로 '품질논란'

폴더블폰 교체 수요, 공급량 초과 전망

애플이 올가을 선보인 신작의 희비가 엇갈렸다. 아이폰18 프로는 품질 논란이 이어지는 반면 초고가 폴더블폰 '아이폰 듀오'는 초기 예약 물량이 소진됐다.

18일 애플에 따르면 오는 23일 국내 출시되는 듀오의 출고가는 256기가바이트(GB) 기준 329만원으로 같은 용량의 아이폰18 프로보다 130만원 높다. 고가에도 초기 예약 물량이 소진된 배경으로는 기존 아이폰 고객의 교체 수요와 공급 제약이 꼽힌다.

듀오는 기존 아이폰의 앱과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폴더블폰으로 교체할 수 있는 애플의 첫 제품이다. 이에 따라 다른 제조사로 전환하지 않고 폴더블폰을 구매하려는 기존 고객층이 초기 수요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기존 아이폰 고객 일부의 교체 수요만으로도 듀오의 초기 공급량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신제품을 먼저 구매하려는 일부 고객의 주문이 단기간에 집중될 경우 초기 공급량을 초과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타룬 파탁 카운터포인트리서치 연구원은 전 세계에서 사용 중인 아이폰을 약 14억대, 듀오의 단기 공급량을 600만대 이하로 추산했다. 기존 아이폰 사용 대수의 0.5%에도 못 미쳐 일부 고객의 교체 수요만으로도 초기 공급량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반면 아이폰18 프로는 출시 직후 일부 이용자가 '패닉풀(갑작스러운 재부팅)' 현상을 호소하면서 품질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페이스ID 인증 과정에서 기기가 재시동되는 사례가 이어지자 애플은 운영체제(OS) 업데이트를 배포해 관련 오류를 수정했다. 애플의 업데이트 안내에는 페이스ID 인증 실패 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재시동 문제가 수정 사항으로 명시됐다. 이와 함께 특정 조명에서 촬영한 사진에 이상이 나타나는 현상과 알림센터·제어센터를 동시에 조작할 때 터치가 작동하지 않는 문제도 수정 대상에 포함됐다.

/구남영 기자

LG전자, '퓨리케어 하이드로타워 맥스' 출시

AI 기반 가습·공기청정 기능 통합


LG 퓨리케어 하이드로타워 맥스 라이프스타일 이미지. /LG전자

LG전자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 습도 조절과 대용량 가습, 공기청정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프리미엄 가전을 선보였다.

LG전자는 프리미엄 가습·공기청정기 신제품 'LG 퓨리케어 하이드로타워 맥스'를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제품은 정수 가습 기술과 공간맞춤 AI 가습, 공기청정 기능을 결합해 넓은 실내 공간의 습도와 공기질을 동시에 관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겨울철과 환절기에는 가습과 공기청정 기능을 함께 사용하고, 다른 계절에는 공기청정기로 활용할 수 있다.

/차현정 기자

매달 3000종 화장품 생산… K-뷰티 글로벌 흥행 숨은 주역

르포
한국콜마 세종공장

38개 생산라인 24시간 풀가동
연간 8억9000만개 생산능력 갖춰
선케어 제품 의뢰 비중 약 30%
국내 유통제품 70% 이상 제조 추산

崔 대표 "화장품 산업 생태계 완벽"
'우보 경영' 36년 만에 대기업 반열

李 장관 "中企 인큐베이터 역할"
화장품 수출 확대·성장 지원 약속



이소영 중기부 장관(왼쪽)이 최현규 한국콜마 대표(오른쪽)로부터 제품 설명을 듣고 있다. /중기부

'총 38개 생산라인에서 연간 약 9억개 제품 생산, 한 달에 만드는 화장품 품목만 2500~3000개, 사용 원료는 약 7000가지, 뷰티 중소기업의 요람, 인디 화장품 브랜드의 인큐베이터…'.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에 있는 한국콜마 세종사업장(세종공장)에 붙일 수 있는 미사여구는 한 두가지가 아니다.

2014년 6월에 설립해 본격 가동을 시작한 이곳 세종공장은 스킨, 에센스, 크림, 클렌징, 향수, 바디·헤어 제품 등의 기초 화장품들을 하루 24시간 생산하며 전세계로 향하는 K-뷰티의 전진기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세종공장의 연간 화장품 생산능력은 총 8억9000만개에 이른다.

특히 이곳에서 만드는 자외선차단제(선크림)는 최근 5년 동안 집계 결과 글로벌 시장에서 1.6초에 하나씩 팔려나갈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다. '콜마가 만들면 다르다'는 이유로 수많은 선케어 브랜드들이 콜마에 생산을 맡겼기 때문이다.

최근 1년 동안 한국콜마에 제품을 의뢰한 고객중 30% 가량이 선케어 제품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국내에서 유통되는 선케어 제품의 70% 이상이 자사 제조 제품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선미녀, 달바 등 글로벌 히트 선크림들이 한국콜마의 기술력과 생산 인프라를 기반으로 탄생한 대표적인 사례다.

이외에 립, 크림, 베이스메이크업 제품도 의뢰 상위 품목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한국콜마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중기부 출입기자들에게 지난 16일 이곳 세종공장을 개방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은 올해 상반기에 역대 최대인 50억7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중소기업 수출품목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화장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숫자도 8135개사로 지난해(7498개사) 보다 8.5% 늘었다.

최현규 한국콜마 대표는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볼때 화장품 산업 생태계가 완벽하게 갖춰진 나라가 됐다. 화장품을 만드는 원료, 부자재 그리고 우리와 같은 ODM(제조자개발생산) 회사들이 화장품 브랜드사 못지않게 많이 포진돼 있다"며 "그리고 중소 인디 브랜드들은 제품 컨셉을 잘 잡고 빠른 의사 결정과 SNS 등을 활용한 마케팅이 매우 뛰어나다. 화장품 유통 플랫폼, 물류 등도 유기적으로 잘 연결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콜마는 지난해 매출 2조7224억원을 기록하며 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기업집단에 새로 포함되며 대기업 반열에 올라섰다. 화장품 ODM 기업으로선 최초다.

1990년 당시 자본금 10억원을 갖고 국내 최초의 화장품 ODM회사로 출발한 한국콜마가 창업주 윤동한 회장의 '우보(牛步) 경영'을 바탕으로 천천히, 그리고 묵묵히 36년을 달려온 결과다. 실제 윤 회장의 철학을 담은 대표적인 단어 중 하나인 '우보(牛步)'라는 글씨는 세종공장 곳곳에서 만날 수 있었다.

한국콜마는 앞서 국내 최초로 화장품 보존력 시험에 로봇 기반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다. 향후에도 보존력 시험에 로봇과 AI 기술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한국콜마 김지희 상무는 "화장품에 관심있는 개인이나 기업이 아이디어를 갖고 찾아오면 우리가 제품 기획부터 연구개발, 생산 제조 그리고 수출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원스톱 솔루션을 완벽하게 제공하고 있다. K-뷰티가 수출 품목 1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콜마에 따르면 현재 화장품 ODM 관련 국내외 고객만 4800여 곳이다. 게다가 매년 100~200개 고객사가 화장품 사업을 위해 찾아오고 있다. K-뷰티의 성장에 따른 인디 브랜드 시장이 확대되면서 문의 건수는 매년 1.5배 가량 늘고 있다.

이 장관은 "화장품 중소기업을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는 현장에 꼭 와서 보고 싶었다"면서 "K-뷰티 화장품이 앞으로 더 잘 되고 수출량도 많이 늘어나고 관련 중소기업들도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특별자치시=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여성기업, 외부 투자유치 3% 못 미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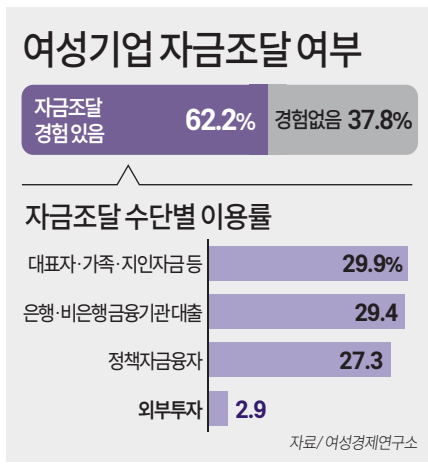
여성경제연구소, 금융지원 보고서
자금조달 자체자금·대출 의존 높아
외부 투자 2.9% 그쳐 정보 부족 걸림돌
성장단계별 맞춤 금융지원 강화 제언

CEO가 여성인 여성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목말라하고 있지만 60% 가량은 대표자·지인 융통이나 금융권 대출을 통해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부로부터 투자 유치는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외부 투자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방법을 잘 몰라서'가 가장 많았다.

이같은 내용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부설 여성경제연구소(여경연)가 132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18일 내놓은 '여성기업 금융지원 현황과 정책과제: 투자연계 지원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나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자금 조달 경험이 있는 기업은 전체의 62.2%였다. 하지만 이 가운데 외부 투자 이용률은 2.9%에 불과했다. 주요 자금조달 수단으로는 '대표자·관계자 자금'이 29.9%, '은행·비은행 대출'이 29.4%로 절반을 훌쩍 넘겼다.



외부 투자 활용도가 낮은 원인으로는 '투자방식·법률·계약에 대한 이해 부족'이 40.1%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투자자 네트워크 부족(38%) ▲IR·재무계획·기업가치 자료 준비(34.1%) ▲매출·시장성·성장성 입증(30.7%) 순이었다.

하지만 여성기업들의 투자 수요는 높았다. 성장 의지와 성장활동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척도인 '성장지향성'은 5점 만점에 4.3점으로 매우 높았다. 하지만 스스로 평가한 '투자준비도'는 3.4점에 머물렀다.

외부 투자 유치 현황 및 계획도 '관심은 있지만 구체적 계획이 없다'는 답변이 44.4%로 절반에 가까웠다.

여경연은 이번 연구를 토대로 해외 선진 사례처럼 성장단계별 맞춤 연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캐나다의 경우 초기기업에 소액대출·상담을, 성장기업에는 벤처캐피털·수출금융 등을 연계하고 있다. 영국은 여성 운용사 및 신규·소형 펀드 출자사업을 통해 여성기업의 투자 기반을 넓혀가고 있다.

여경연은 "여성기업 금융지원은 이제 '얼마를 공급할 것인가'에서 '기업 상황에 어떤 금융수단을 연결할 것인가'로 관점을 고도화해야 한다"며 "기업별 준비도를 진단해 초기 기업에는 IR·재무·계약 이해를 돕고, 역량을 갖춘 기업에는 투자자 매칭과 후속 투자까지 이어주는 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한국벤처투자, 스타트업 美 투자유치 지원

1000억 규모 'K-Founder 펀드' 조성
뉴욕 행사에 국내 유망기업 5곳 참여

한국벤처투자가 약 1000억원 규모의 재외동포 창업가 펀드인 'K-Founder 펀드' 조성에 이어 해외 한인 창업가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투자유치 지원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한국벤처투자는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지난 12일~18일(현지시간)까지 진행한 'UKF KOOM WEEK 2026'에 국내 유망 스타트업 5개사와 함께 참여해 현지 투자자와의 교류 및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참여는 모태펀드 출자로 마련한 투자 기반과 해외 한인 창업가 네트워크를 연계해 글로벌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한국벤처투자는 지난해 4월 미국 한인 창업자 연합인 UKF(United Korean Founders)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인 창업자의 성장과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다.

올해 7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가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1000억원 규모의 K-Founder 펀드 조성을 뒷받침했다. 해외 한인 창업가의 성장과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투자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이번 행사에서는 펀드의 운용 방향을 현지에 알리고 기업과 투자자 간 접점을 넓히는 데 중점을 뒀다.

이대희 한국벤처투자 대표는 "K-Founder 펀드 조성으로 마련한 투자 기반에 해외 한인 창업가 네트워크와 KEYNECT를 연결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투자유치 기회를 넓혀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펀드 출자와 현지 기업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유망 스타트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수탁·위탁거래 1만5000곳 불공정행위 조사

중기부, 19일부터 실태조사 착수
납품대금 지급·부당감액 등 점검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바로잡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9일부터 '2026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18일 중기부에 따르면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법정 조사다. 이번 조사에서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총 1만5000개사(위탁 3000개사, 수탁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동안 이뤄진 거래 전반의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점검한다.

주요 조사 항목은 상생협력법 제21조부터 제25조에서 규정한 위탁기업의 의무사항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여부 ▲약정서의 발급 여부 ▲납품대금 지급 및 지급기일 준수 여부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여부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 여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여부 등이다.

특히 중기부는 기존에 해당 연도 상반기 거래를 중심으로 실시하던 조사 방식을 개선해 이번 조사부터 대상 거래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했다. 이는 유통·식품·건설 등 하반기에 거래가 집중되는 업종이 조사에서 누락될 가능성을 줄이고, 연간 거래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실태조사는 위탁기업 거래현황 및 설문조사, 수탁기업 설문조사, 법 위반 의심기업 현장조사 등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위탁기업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SK온, 차세대 배터리 기술 경쟁력 확보 속도

미래기술원 학술대회서 연구 성과 공유

SK온이 차세대 배터리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SK온은 이번 행사를 통해 연구개발 역량을 결집하고 미래 성장 기반을 한층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SK온은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대전광역시 유성구 SK온 미래기술원에서 '제2회 미래기술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우리가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이용욱 SK온 사장과 박기수 SK온 미래기술원장 등이 참석했다.

올해 행사에는 배터리 공정, 셀, 시스템, 소재, 차세대, 플랫폼 등 총 6개 분야에서 연구 과제가 출품됐다. 출품작 수는 지난해보다 약 15% 증가한 300여편에 달했다.

올해 대상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양극 제조에 쓰이는 고가의 CNT 페이스트를 CNT 파우더로 대체할 수 있는 공정을 개발한 연구팀이 수상했다.

연구팀은 CNT 파우더를 양극 소재에 고르게 분산시켜 기존 CNT 페이스트 공정보다 원가 경쟁력을 높이면서도 동등 수준의 성능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해당 기술은 향후 실제 생산 공정에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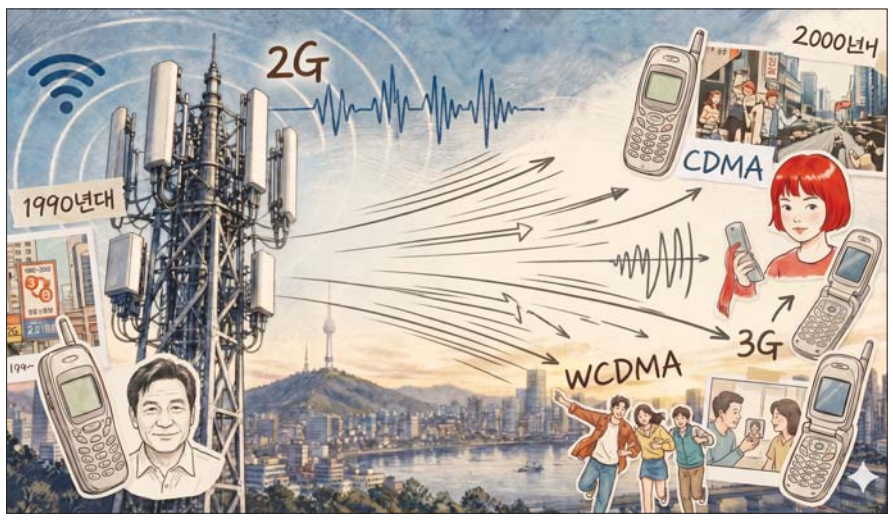

28
AI INNOVATION
풀스택 AI·데이터·연계플랫폼 초월기업
Leading AX Platform
온프레미스 & 클라우드 하이브리드형 시장 점유율 1등 기업
ARAG
Graph RAG
LLM 모델
최적화 및 튜닝
LLM/MLOps
멀티
에이전틱빌더
MCP/A2A
Document AI
LLaMON
AX통합플랫폼
VLM OCR
Voice
디지털집현전 AI
민원상담 AI
복지AX
복지상담·안내
ESB
MCP
Gateway
APIG
Gateway
MESIM AX
AI연계플래폼
시장 점유율 1위
AI연계개발
장애 Agent
망/SAP
연계
Dashboard
Observability
Monitoring
자율주행
교통
철도
항공
드론
도시
산단
건설
KLEVER
디지털트윈
휴먼플랫폼
레이더검지
AI영상검지
디지털휴먼
플랫폼
METABUILD
본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2 2사옥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4
교통자율주행 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08 | www.metabuild.co.kr
T 02.598.3327 | F 02.598.3329 | Email support@metabuild.co.kr

음성 통화에서 데이터 전송으로… '손 안의 PC' 시대 열리다

통신의 진화

❶ 2G에서 3G까지

이동통신 기술이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수적인 6세대 이동통신(6G)의 본격 도입을 앞두고 이동통신 업체들의 경쟁은 통신에 AI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 일상과 국내 산업의 지형을 바꿔놓은 이동통신의 발전상을 과거 아날로그 음성 통화에서 디지털 방식에, 최근의 AI 네트워크 확장까지 굵직한 이벤트 중심으로 짚어본다. 〈편집자주〉



AI에 의해 생성된 기존 보다 100배 빨라진 속도로 데이터 혁신을 이끈 3세대 통신 이미지.

"한국 지형에 강하다." "영상통화 완전 정복."

디지털 통신 시대가 열린 1990년대 중반부터 데이터 전송 속도가 대폭 향상된 2000년대 후반까지, 국내 이동통신의 기술의 변화를 보여주는 광고 문구들이다.

1996년 시작한 국내 2세대(2G) 이동통신은 휴대전화의 대중화와 단말기 시장의 성장을 이끌었다. 아날로그 방식의 1세대 이동통신이 음성 통화에 집중됐다면, 디지털 방식의 2G는 문자메시지와 이미지까지 정보 전달의 범위를 넓혔다.

2G 시대 이후 휴대전화 대중화
CDMA로 주파수 대역 효율적 공유
3G 시대, WCDMA로 속도 혁신

당시 폴더형, 슬라이드형 등 다양한 디자인이 등장하면서 휴대전화는 개인의 취향을 드러내는 소비재로 자리잡았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전자 등 국내 제조사들이 차별화된 디자인을 앞세워 단말기 경쟁에 나섰다.

통신사들도 젊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고유의 브랜드를 시장에 내놓았다. 당시 SK텔레콤은 빨간 단발머리를 한 'TTL소녀' 임은경이 날아오는 토마토를 맞는 이색적인 광고영상을 선보여 큰 화제를 모았다. 이어 KTF(현 KT)와 LG텔레콤(현 LG유플러스)이 문근영과 김현정 등 당시 10대에게 사랑받는 연예인을 내세워 비기(Bigi)와 카이(Khai)를 각각 선보였다.

이같은 문화가 형성된 기술적 배경에는 1996년 상용화에 성공한 코드분할 다중접속(CDMA)이 있다. 이는 한정된 통신 주파수를 더 많은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주파수 대역을 효율적으로 공유하는 방식이다.

당초 CDMA는 군사 목적의 위성통신에서 먼저 사용됐는데, 미국의 퀄컴사가 이를 이동통신에 적용하는 원천 기술을 확보했으며 이후 SK텔레콤이 퀄컴과 공동 계약을 맺고 국내에 공식 개시했다.

다만 당시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 80% 이상의 국가가 사용하던 시분할 다중접속(TDMA) 방식을 채택하지 않은 점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통신사들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빠르게 기지국을 설치할 수 있었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유럽 등에서 해외 로밍을 시도할 때 통신 규격의 차이로 불편을 겪었다.

3세대 이동통신망이 전국에 구축된 2000년대에는 유럽 등에서 택한 광대역 부호분할다중접속(WCDMA) 방식을 적용했다. 이로써 유심(USIM)이 국내에도 처음 도입되면서 해외에서 자동 로밍이 가능해졌다.

3G의 핵심은 데이터 전송 속도의 혁신이다. 2G 전송 속도(144Kbps) 보다 약 100배 빠른 14Mpbs 수준이다. 통신사가 3G 초기 속도보다 더 빨라진 HSDPA(3.5세대 이동통신기술)를 상용화하면서, 주문형비디오(VOD)·영상통화·MP3·인터넷까지 개인용 컴퓨터(PC)과 유사한 기능을 휴대폰 속에 구현하게 됐다.

이에 국내 통신사들은 통합 브랜드를 선보이며 영상 통화 경쟁에 나섰다. 다만 LG텔레콤은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기존 CDMA 기술 경로를 택하면서 다른 길을 걸었다. SK텔레콤과 KTF가 'T 3G+'와 '쇼(SHOW)'를 선보인 지 1년 후인 2008년에 '오즈'라는 데이터 특화 브랜드를 출시하며 뒤늦게 3G 서비스 시장에 합류했다.

3G는 내년 말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이다. 무선 인터넷 시대를 연 3G는 국제 이동통신 표준에 속한 두 갈래의 기술이 병존한 시기였다. 정부의 3G 사업자 선정과 통신시장 재편을 거치며 인수·합병이 이어졌고, 오늘날의 이동통신 3사 경쟁 구도로 자리 잡았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팬덤소비는 '활발하게', 웹툰은 AI 영상으로 '생생하게'

k 카카오 10조 성장 전략

❸ IP 수익화

카카오엔터, 음악 IP 중심 사업 확대
멜론·베리즈·공연 예매 연결 '핵심'
카카오픽코마, AI로 웹툰 IP 애니화
시장 경쟁, 흥행 불확실성 등은 과제

카카오가 인적분할 이후 콘텐츠 계열사를 앞세워 글로벌 '팬덤 경제' 공략에 나선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SM엔터테인먼트, 카카오픽코마가 보유한 지식재산권(IP)을 기반으로 공연·음원·웹툰·굿즈 사업을 확대하고 결제와 모빌리티까지 연결하는 전략이다.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하는 기존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팬들이 콘텐츠를 소비하는 전 과정에서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18일 카카오의 '2026년 애널리스트 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는 콘텐츠 사업의 글로벌 확장과 IP 수익화 강화를 중장기 핵심 성장 전략으로 제시했다. 특히 음악 IP의 글로벌 유통과 팬덤 플랫폼 고도화, 공연 사업 확대를 통해 콘텐츠 계열사의 성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는 카카오X가 추진하는 금융·콘텐츠·모빌리티 중심 사업 재편의 한 축이다. 금융 계열사가 AI 결제와 디지털자산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면, 콘텐츠 계열사는 글로벌 팬덤을 기반으로 수익원을 다변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 공연·굿즈·팬덤 플랫폼 연결…IP 수익화 확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음악 IP를 중심으로 글로벌 유통과 마케팅을 강화하고 팬덤 플랫폼과 공연 사업을 확대한다.

핵심은 멜론과 팬덤 플랫폼 '베리즈', 공연 예매 서비스를 연결하는 것이다. 공연 예매부터 팬 커뮤니티 활동, 굿즈 구매까지 이용자 경험을 통합해 팬덤의 활동성을 높이고 새로운 매출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카카오X는 여기에 카카오모빌리티와 카카오페이 등 계열사 서비스를 결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팬이 공연을 예매한 뒤 이동수단을 예약하고 결제와 굿즈 구매까지 하나의 서비스 흐름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구상이다.

단순한 공연 티켓 판매를 넘어 팬덤의 소비 활동 전반으로 사업영역을 넓히겠다는 의미다. 다만 계열사 간 서비스 연결은 추진 전략인 만큼 실제 통합 범위와 수익 창출 효과는 향후 확인이 필요하다.

SM엔터테인먼트는 기존 아티스트와 신규 IP를 함께 육성해 글로벌 팬덤 확대에 나선다. 에스파와 라이즈, NCT 위시, 하츠투하츠 등을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활동을 강화하고 공연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기존 팬덤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 북미에서는 현지 파트너십과 마케팅을 강화해 성장 기회를 넓힌다는 전략이다.

공연 확대는 굿즈와 라이선싱 사업 성장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앨범과 공연 연계 상품, 팝업스토어, 캐릭터 상품 등으로 IP 수익화 영역을 넓히고 있다. 기존 아티스트의 팬덤을 유지하면서 신규 아티스트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성장의 핵심이다.

◆ 웹툰에 AI 영상 결합…글로벌 콘텐츠 수익모델 다변화

카카오픽코마는 웹툰 IP에 인공지능(AI) 영상 콘텐츠를 결합해 새로운 수익모델을 구축한다.

카카오픽코마는 일본 시장에서 원작 웹툰을 활용한 AI 애니메이션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주간 연재 체제를 구축하고 연내 약 80편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AI 애니메이션의 월별 과금 매출은 5월 대비 9월 약 4.5배 증가했다. 영상 콘텐츠를 통해 유입된 이용자가 원작 웹툰을 구매하는 효과도 확인했다.

카카오픽코마는 2027년부터 원작 소설의 AI 실사 영상과 애니메이션 제작, 오디오북 등으로 콘텐츠 형식을 다변화할 방침이다. 하나의 IP를 여러 콘텐츠로 재가공해 이용자를 확대하고 추가 매출을 창출하는 구조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역시 스토리 IP의 드라마·영화 제작과 음악 IP 기반 영상 콘텐츠 협업을 확대한다. 웹툰과 웹소설, 음악, 영상으로 이어지는 IP 활용 범위를 넓혀 콘텐츠의 수명을 연장한다는 전략이다.

다만 글로벌 콘텐츠 시장의 경쟁 심화와 제작비 부담, 신규 IP 흥행의 불확실성은 과제로 남아 있다. 팬덤 플랫폼과 AI 영상 사업 역시 이용자 증가가 실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검증해야 한다.

결국 카카오 콘텐츠 전략의 성패는 인기 IP를 얼마나 지속 가능한 수익으로 전환하느냐에 달려 있다. 공연과 굿즈, 웹툰, 영상에 금융·모빌리티 서비스를 연결하는 구상이 실질적인 성과를 낸다면 카카오X의 기업가치 제고에도 힘을 보탤 전망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LG U+, 순직소방관 추모 '메모리얼런' 성료

유가족 등 2300여명 참여

LG유플러스는 지난 17일 순직 소방관을 추모하는 러닝 행사 '유플러스 199 메모리얼런 2026'을 성료했다고 18일 밝혔다.

행사에는 세종중앙공원과 국립세종수목원 일대에서 일반 참가자와 현직 소방관, 순직 소방관 유가족, 주요 관계자 등 2300여 명이 참여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유플러스 119 메모리얼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한 순직 소방관을 추모하고 소방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국민 참여형 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와 임직원들도 참가자들과 함께 달리며 순직 소방관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소방가족을 격려했다.

참가자 2000명 중 1400명은 소방을 상징하는 숫자 '119'의 의미를 담아 11.9㎞ 코스를 달렸다. 이 밖에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5㎞ 코스에는 60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자신의 이름과 함께 순직 소방관의 이름과 순직일자가 적힌 배번표를 착용하고 달리며 희생과 헌신을 되새겼다. 순위 경쟁이나 시상은 두지 않고 안전한 완주와 추모의 의미에 집중하도록 행사를 운영했다.

특히 지난해 1회 대회 참가자 500여 명은 올해 행사에도 참여했다. 1000여명이 넘는 현직 소방관이 이번 대회에 재신청했으며, 소방을 상징하는 의미로 총 119명이 행사에 함께했다. 또한 회사는 장기 이용 VIP 고객과 소셜미디어 이벤트 참여자 등을 초청해 고객이 직접 추모와 나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17일 세종에서 열린 '유플러스119 메모리얼런 2026'에서 참가자들이 출발선을 지나 달리고 있다. /LG유플러스

/조민선 기자

안랩, AI 보안관제에 '통제된 자율성' 적용

싱가포르 '거브웨어 2026'서 선봬

안랩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싱가포르 샌즈 엑스포 앤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보안 컨퍼런스 '거브웨어 2026'에 참가해 자사 인공지능(AI) 보안 통합 브랜드 '안랩 AI 플러스'를 중심으로 관련 기술과 제품을 선보였다.

거브웨어는 싱가포르 사이버보안청이 주관하는 '싱가포르 국제 사이버 위크'의 부대 행사다.

안랩에 따르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인도, 필리핀 등의 기관·기업 보안 관계자 500여 명이 부스를 찾았다. 그 중에서도 AI 보안관제(AI SOC)에 가장 많은 관심이 모였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AI SOC는 여러 AI 에이전트가 협업해 주요 보안 경보를 골라내고 위협의 맥락을 분석하는 방식이다. 분석 보고서를 만들고 대응하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일도 지원한다. .

안랩은 이 방식에 '통제된 자율성'이라는 원칙을 적용한다. AI의 자율성은 넓히되, 권한·정책·감사·승인 체계를 둬 사람이 운영을 통제할 수 있게 한다는 개념이다.

공장 등 산업 현장에서 설비를 감시·제어하는 운영기술(OT) 환경을 노린 사이버 위협이 늘어나는 가운데, 안랩은 사이버물리시스템(CPS) 보안 제품 '안랩 CPS'도 소개했다.

/조민선 기자

팔던 외국인, 다시 한국 채권 담았다… 장기 투자 수요 여전

이달 16일까지 1조4113억 순매수
환헤지 비용 상승에 매도 확대
전문가들, 일시적 조정으로 평가


여의도 금융가와 한강을 배경으로 외국인의 국내 채권 투자를 상징화한 모습. /AI 생성 이미지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장외채권시장에서 8·9월 순매도한 뒤 이달 들어 순매수로 돌아섰다. 국내 금리가 높아져도 환위험 관리와 자금 조달 비용을 고려한 투자 수익성이 낮아지면 외국인의 매수는 줄어들 수 있다. 앞선 순매도는 일시적인 조정이며 장기 투자 수요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서비스 자료를 집계한 결과, 외국인은 이달 16일까지 장외채권을 거래대금 기준 1조4113억원 순매수했다. 국채 7604억원, 은행채 3393억원, 통안증권 2431억원 등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지난 7월 1조8118억원 순매수에서 8월 8885억원, 9월 1조1581억원 순매도로 전환했다. 9월에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안증권을 9786억원, 국채를 2483억원 순매도했다. 전체 매도액은 전월보다 줄었지만 매수액이 더 크게 감소하면서 순매도가 확대됐다.

이달에도 12일까지는 9844억원 순매도했으나 13·14일 이틀간 1조4208억원을 순매수했다. 이 중 국채 순매수가 1조2714억원으로, 이달 누적 매매를 순매수로 바꾸는 데 주된 역할을 했다. 이후에도 15일 6552억원, 16일 3197억원을 순매수하며 매수 우위를 이어갔다.

국고채 금리는 여름 이후 상승했다가 최근 낮아졌다. 16일 장 마감 기준 3년물과 10년물 최종호가수익률은 각각 연 3.854%, 4.182%로 9월 말보다 15.7bp, 22.5bp 하락했다. 다만 6월 말보다는 각각 15.1bp, 9.1bp 높은 수준이다. 1bp는 0.01%포인트다.

높은 금리가 외국인에게 곧바로 매수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는 비용까지 감안하면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달라진다.

금투협은 9월 초 통화스와프(CRS) 금리 상승으로 외국인의 재정거래 유인이 약해지면서 단기물 매도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월 후반에는 거래 여건이 일부 개선됐고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관련 중기물 매수세가 유지됐다고 분석했다. 재정거래 유인은 자금 조달과 환위험 관리 등을 거쳐 국내 채권에 투자할 때 얻는 수익상의 이점을 뜻한다.

채권 분석 전문가인 윤여삼 메리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국내외 금리차와 스왑레이트 변화가 이 같은 투자 이점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환헤지를 바탕으로 투자하던 영국 등 유럽계 자금의 유출도 확인됐다는 분석이다.

만기가 돌아온 채권의 재투자 부진도 보유잔고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9월 말 외국인의 국내 채권 보유잔액은 336조9000억원으로 전월 말보다 7조8000억원 줄었다. 윤 팀장은 외국인 보유 비중이 높았던 국채 약 16조원의 만기도래 과정에서 글로벌 채권 투자심리가 위축돼 재투자가 원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만기 상환은 시장에서 채권을 파는 순매도와 별개로 보유잔고를 줄이는 요인 중 하나다.

통안증권 매수 재개에 대해서는 수주간 매도로 금리 수준이 조정된 뒤 신규 발행물의 일정 물량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봤다. 채권 종류별 매매 차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다.

윤 팀장은 앞선 외국인 매도를 "일시적 조정"으로 평가하며 "일본계와 노르웨이 국부펀드 등 장기 투자주체의 자금 유입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향후에는 한국의 재정여력과 국채 공급이 투자 매력을 뒷받침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수가 늘고 국고채 발행량이 조절되면 재정 우려가 큰 일부 선진국보다 한국 국채의 상대적인 매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통화정책에서 추가 악재가 생기지 않는다면 우호적인 수급이 해외 금리 변동의 영향을 줄이고 국내 금리의 고점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코인 대여 연 18% 수수료… 주식보다 비싸

금융당국 가이드라인 상한 20%
해외 코인거래소도 국내보다 낮아


국내 주요 거래소 코인 대여 수수료는 연 18%대로 증권사 신용대주(연 2.5~6%)와 해외 거래소(바이낸스 비트코인 연 0.43%)보다 높다. /따능AI로 생성한 이미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대부분이 코인 대여 수수료로 연 18%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을 빌려 파는 증권사 신용대주나 해외 거래소의 코인 대여 금리보다 높은 수준이다.

18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대여 서비스를 운영하는 4개 거래소의 연환산 수수료는 디지털엑스(옛 코빗) 18.72%, 빗썸·코인원 18.25%, 업비트 18.20%였다. 하루 0.05% 안팎의 이용료를 1년으로 환산한 수치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9월 시행한 가이드라인은 수수료 상한을 연 20%로 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코인원은 지난 8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이용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코인 대여는 원화나 코인을 담보로 맡기고 코인을 빌리는 서비스다. 빌린 코인을 팔았다가 가격이 내리면 다시 사서 갚는 방식으로 쓰인다. 주식의 신용대주와 구조가 비슷하다.

증권사 신용대주 이자율은 키움증권이 연 2.5~4.0%, 대신증권이 연 6%다. 대주를 기한 내 갚지 못했을 때 적용하는 연체 이자율 상한은 미래에셋증권 연 9.9%, 한국투자증권 연 9.95%다.

금액으로 따지면 차이가 더 분명하다. 1000만원어치를 30일 빌린다고 하면 하루 0.05%를 받는 거래소에서는 수수료로 약 15만원을 낸다. 같은 금액의 주식을 빌리면 이자는 대신증권 약 4만9000원, 키움증권 약 2만~3만3000원이다.

해외 거래소의 코인 대여 금리도 국내보다 낮다. 가상자산 데이터 업체 코인글래스에 따르면 18일 오후 기준 바이낸스에서 일반 회원이 코인을 빌릴 때 연 이자율은 비트코인 0.43%, 이더리움 1.98%, 테더(USDT) 4.71%였다. 해외 거래소 금리는 코인별 대여 수요에 따라 수시로 바뀐다. 국내 거래소는 코인 종류와 관계없이 비슷한 수수료를 받는다. 바이낸스는 국내에 신고되지 않은 사업자로 국내 투자자는 이용할 수 없다.

비교 대상 사이에는 조건 차이도 있다. 국내 거래소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기 자산으로만 코인을 빌려줄 수 있다. 주식 대주는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 가운데 증권사가 정한 종목만 가능하고, 대여 기간도 코인은 최대 30일, 주식은 90일로 다르다.

/김아영 기자 aykim@

한국팀, AI 투자자보호 국제대회 수상

금감원·삼성전자 등 전문가들 뭉쳐
AI 기반 투자사기 예방 게임 개발

한국팀이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가짜 투자정보를 검증하도록 돕는 보드게임을 개발해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경진대회에서 수상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의 '트러스트 앤드 베리파이(Trust & Verify)' 팀은 IOSCO가 주최한 글로벌 투자자보호 AI 프로그램 개발 경진대회 '테크스프린트 2026' 본선에서 지난 8일 '투자자행동 영향'상을 받았다.

수상팀은 금감원 제재심의국 이은솔 선임조사역, 현대무벡스 김태원 대리, 삼성전자 김효원 대리 등 금융투자자 보호 및 AI 개발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AI가 생성한 가짜 투자정보에 대해 투자자가 스스로 검증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유도하는 AI 기반 보드게임을 선보였다. AI를 활용한 투자사기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개인투자자의 행동 변화를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대회에는 각국 민간과 금융감독기관 등 총 65개 팀이 지원했다. 이 가운데 14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으며 한국팀을 포함한 5개 팀이 수상했다.

금감원은 수상작을 향후 체험형 교육·홍보 행사 등에 활용해 AI 기반 투자사기에 대한 투자자의 인식을 높이고 건전한 AI 활용 능력을 키울 계획이다.

/허정윤 기자

무사고 건강보험료 할인, 비대면 신청 가능

금감원 Q&A

무사고 전환 절차 간소화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입원이나 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정 기간 보험금을 청구할 만한 사고가 없었다면 기존 보장을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낮출 수 있지만, 상당수 가입자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라 혜택을 놓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복잡한 신청 절차 없이 전환 의사만 밝히면 보험회사가 가장 유리한 할인 조건을 찾아 적용해 줍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사고 계약전환 제도'의 안내와 신청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사고 계약전환 제도는 건강보험 가입 이후 일정 기간 입원이나 수술, 중증질병 진단 등이 없는 계약자에게 기존 보장을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수 보험회사가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혜택을 받는 가입자는 많지 않습니다.

올해 5월 말 기준 무사고 전환제도가 적용되는 보험계약은 총 1081만건입니다. 이 가운데 계약 체결 후 1년 이상 지난 657만건 중 실제 보험료 할인을 받은 계약은 116만건으로 17.6%에 그쳤습니다. 금감원은 실제 무사고 할인 대상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험회사는 연 1회 계약응당일 이전에만 할인 가능 여부를 안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계약응당일은 보험계약 체결일에 대응하는 매년 같은 날짜를 뜻합니다. 정작 할인 신청이 가능한 시점에는 별도 안내가 없어 가입자가 혜택을 놓치기 쉬웠습니다.

앞으로는 계약응당일 이후에도 할인 가능 여부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신청과 전환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추가 안내하도록 개선됩니다. 알림톡뿐 아니라 전화와 우편 등 여러 수단을 활용해 안내받지 못하는 가입자도 줄일 계획입니다.

안내문 내용도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보험료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해 광고나 스팸 문자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안내문 제목과 첫 문장에 보험료 할인 안내라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고, 전환 전후의 계약 유형과 보험료를 비교해 보여주도록 했습니다.

신청 절차도 간단해집니다. 일부 보험회사는 모바일로 할인 가능 여부를 안내하면서도 실제 신청은 지점 방문이나 보험설계사를 통해서만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알림톡이나 전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로 안내받았다면 별도 방문 없이 통화 중 전환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할인 유형도 가입자가 직접 선택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기존에는 복잡한 전환 유형을 이해하지 못해 실제 무사고 기간보다 낮은 할인율을 적용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가입자가 전환 의사를 밝히면 보험회사가 사고 이력을 확인하고 필요한 고지사항을 확인한 뒤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전환하도록 개선됩니다.

다만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가 자동으로 할인받는 것은 아닙니다. 무사고 계약전환 제도가 적용되는 상품인지, 입원·수술·중증질병 진단 이력 등 전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으로 가입자가 제도를 몰라 보험료 할인 혜택을 놓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보험회사에 무사고 계약전환 대상 여부를 문의하고, 할인 가능한 계약이라면 전환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기술에 심미성 더했다… 국산 의족, 레드닷 최고상 수상

근로복지공단 제너레이티브 의족
3차원 신체 데이터로 맞춤 설계
사용자 심리·정서적 측면도 고려


생체모사형 제너레이티브 의족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이 개발한 의족이 국제 무대에서 최고의 상을 수상했다. 기능성에 심미성 요소를 가미한 미래지향적 의족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생체모사형 제너레이티브 의족'이 레드닷디자인어워드 2026에서 최고상인 '베스트오브더베스트'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공단 소속의 재활공학연구소가 자체 연구·개발했다.

레드닷디자인어워드는 독일 iF디자인어워드, 미국 IDEA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힌다. 공단이 만든 의족은 디자인 콘셉트 부문 의료기기·기술 분야에서 디자인의 혁신성과 완성도를 인정받아 베스트오브더베스트로 선정됐다.

공단은 지난해 제25회 인간공학디자인상 대상에 이어 세계적인 디자인상에서도 성과를 거둔 것. 사용자 중심의 재활보조기기 연구·개발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생체모사형 제너레이티브 의족은 절단 사용자의 3차원 신체 형상을 데이터 바탕으로 설계한다. 신체 형태와 구조적 기능을 하나의 프레임에 통합한 새로운 개념의 의족이다.

생성형 설계와 위상 최적화 기술을 적용한다. 또 신체 데이터와 구조 하중, 제조 조건을 함께 고려한 금속 적층 방식으로 제작해 기능성과 심미성을 조화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기계적 구조를 외형으로 가리는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의족 자체의 구조가 디자인 되도록 했다. 사용자가 의족을 자신의 몸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신체 형태뿐 아니라 심리적·정서적 측면까지 고려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단 관계자는 이 제품의 개발 배경 관련해 "기존 의족은 하중을 지지하는 기계적 구조와 외형을 재현하는 미용 요소가 분리되는 경우가 많다"며 "본 연구는 이러한 구조·외형의 분리를 신체 데이터와 공학적 설계조건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재해석하는 데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공단 의족은 '레드닷디자인어워드 2026' 제품디자인 부문에서도 '레드닷 위너'로 선정됐다. 미래지향적인 디자인과 혁신성뿐 아니라 디자인 품질과 기능성, 완성도에서도 인정받은 것이다.

박승흡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수상은 사용자의 몸과 마음을 함께 고려한 재활공학 연구성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뜻깊다"며 "앞으로도 산재노동자가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재활보조기기를 개발해 삶의 질 향상과 일터 복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의 재활공학연구소는 산재노동자의 일상회복과 일터복귀를 지원하는 의지·보조기 및 재활보조기기를 연구·개발하고 있다.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과 첨단 제조 기술을 접목한 제품 개발에 한창이다.

지난 15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시빅 디스트릭트에서 레드닷디자인어워드 2026 디자인 콘셉트 부문 시상식이 열렸다. 수상작은 레드닷 공식 전시 및 온라인 전시 등을 통해 국제 사회에 소개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반도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준 개선

KTR, 온실가스 배출·감축 계수 개발
온실가스 배출량 최대 20% 낮아져


KTR이 실제 현장에서 온실가스 측정하는 장면. /KTR

국내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공정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정확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계수가 개발돼 산업계의 탄소중립 대응에 기여할 전망이다.

18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신기후체제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일환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의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계수 114건을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된 계수는 온실가스 배출계수 80건과 감축계수 34건 등 총 114건이다. 배출계수는 특정 활동이나 연료 사용으로 발생한 온실가스의 단위당 배출량을 수치화한 계수이며, 감축계수(가스저감효율)는 온실가스가 스크러버 등 저감시설을 통과하면서 제거되는 비율을 말한다.

지금까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은 공정과 저감시설의 종류, 운전조건에 따른 배출, 저감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기본 계수를 활용해 왔다.

이에 KTR은 2022년부터 국내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현장에서 ▲온실가스가 제조과정에서 분해, 소모되는 비율 ▲공정 과정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부생가스 비율 ▲저감시설을 거치면서 제거되는 비율 등을 측정하고 관련 데이터를 수집, 축적해 새로운 계수를 개발해 왔다.

이번에 개발한 배출, 감축계수를 통해 해당 산업현장에서는 실제 제조공정과 설비 운전조거너이 반영된, 보다 정확도와 신뢰도가 높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

실제로 KTR이 과제 수행 과정에서 새로 개발한 계수를 현장에 적용한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존 기본 계수 대비 최대 20% 낮게 나타났다.

개발된 감축계수는 ▲연소식 및 플라즈마식 배출가스 제거장치(스크러버) 운영방식 ▲온실가스 종류 ▲공정 조건 등에 따른 저감효율을 반영한 34건이며, 배출계수는 반도체 식각공정에 사용되는 주요 식각가스의 공정파괴율과 부생가스 발생비율 등을 반영한 80건이다.

특히 이번에 개발한 114건의 계수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배출계수 데이터베이스(EFDB)에 등재돼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연구에 활용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축평원, '저탄소축산물 농장' 271곳 인증

온실가스 배출 10% 절감 농장

축산물품질평가원이 '2026 저탄소 축산물 인증' 희망 농장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총 271개 농장이 추가로 축평원의 인증을 받았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운영하는 제도이다. 가축 사육 과정에서 탄소 감축기술을 적용해 축종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10% 이상 줄인 농장에 대해 인증한다. 소비자는 저탄소 인증 마크를 통해 인증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한우(거세)와 돼지, 젖소 농장을 대상으로 신규 저탄소 인증 희망 농장을 접수 받았다. 9월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보고서 및 현장 심사를 진행했고 최종 심의를 거쳐 총 271개 농장에 대한 인증을 완료했다.

축평원은 또 하반기 신규 모집을 통해 접수된 98개 농장과 2023년 최초 인증 이후 인증기간(3년)이 만료되는 한우 농장 44곳에 대해서도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들 농장은 지난 8월 현장의견 등을 반영해 지원 자격을 완화한 기준에 따라 심사 후 11월 말에 최종 인증받을 예정이다.

박수진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탄소 축산물 인증에 동참해 주신 농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인증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참여 농장을 확대해,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과 소비자의 가치 있는 선택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신규 인증을 포함해 현재까지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장은 한우 177곳, 돼지 439곳, 젖소 235곳 등 총 851곳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마사회, '스피드영' 키링 2주 만에 완판

지역별 팝업 운영 확대

한국마사회가 자체 굿즈 상품 라인업을 확대하고 지역별 팝업 운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표 캐릭터인 '말마'를 중심으로 시작한 렛츠런파크 굿즈숍 '말마프렌즈 스토어'에 가족단위 및 MZ세대 방문객 수가 늘었다. 최근 경주마 굿즈 브랜드 '명마당'의 프리미엄 라인인 '연도대표마 시리즈'를 새롭게 선보였다.

연도대표마 시리즈는 연도대표마들이 G1 경주에서 우승한 순간을 디자인에 담아, 경주마 고유의 이야기를 소장할 수 있도록 기획한 굿즈다. 첫 제품으로는 부산경남을 대표하는 경주마이자 연도대표마에 오른 위너스맨과 스피드영의 키링을 출시했다.

두 제품은 말마프렌즈 스토어와 경북 영천 팝업(10월11일)에서 판매를 시작했다. 제주(10월24일)와 부산(11월1일) 팝업에서도 선보일 예정이다.

반응은 출시 직후부터 뜨거웠다. 이달 3일 출시된 스피드영 키링은 준비 물량 300개가 2주 만에 모두 팔렸다. 한국마사회는 수요에 맞춰 200개를 추가로 입고해 지역 팝업에서도 판매할 예정이다. 위너스맨 키링 역시 10월 말 500개가 추가 입고된다. 스피드영의 경우 지난 11일 열린 대통령배에서 3위를 기록했다.

마사회는 굿즈를 렛츠런파크를 알리는 접점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경주 관람뿐 아니라 승마 체험과 축제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그 매력을 알린다는 복인 것.

또 말마프렌즈 스토어 인근 전시공간 '놀라운지'에서는 정하진 작가와 협업한 아트 엽서 세트를 제작·판매한다. 렛츠런파크의 사계절과 경주, 공원풍경, 체험장면 등을 작가의 시선으로 재해석한 작품 12종으로 구성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남부발전, 고양창릉 신도시에 에너지 공급

고양시와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500MW급 복합발전소 내년 1월 착공

한국남부발전이 고양특례시와 손잡고 3기 신도시인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에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기반 구축과 지역 상생 발전에 나선다.

남부발전은 지난 16일 고양시청에서 고양특례시와 고양창릉복합 발전소 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주택공급 및 주거안정 정책에 발맞춰 추진되는 고양창릉 신도시(약 3만 8000 세대) 입주민에게 차질 없이 전력과 열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양창릉복합 발전소는 500MW급 규모로 내년 1월에 착공해 202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발전소 건설이 단순한 에너지 인프라 확충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이 되도록 뜻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남부발전은 ▲지역 주민 채용 확대 ▲지역 건설업체 우선 참여 ▲지역 내 업체를 통한 물품 구매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고양시 역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수시로 소통 채널을 가동하고 주요 현안에 공동 대응하며 긴밀한 협력 체계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준동 남부발전 사장은 "이번 상생협력 협약을 계기로 고양시와 사업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며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3기 신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고양창릉복합 발전소도 차질없이 건설해 안정적인 전력과 열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신도시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Salut Lucide
UV PROTECTION PATCH

6시간 야외활동 후, 피부는 달라집니다.

보이지 않는 보호, 더 우아한 선케어

골프, 여행 등 야외 활동을 위한 초슬림 투명 UV패치

세계 100대 골프 코스,
엄격한 제품 선별 기준의
해슬리 나인브릿지에 국내 유일 입점

UV-A 98% / UV-B 99% 차단
광대까지 커버되는 88mm × 60mm 대형 패치
접착제 없이 편안한 밀착
자외선 차단 + 피부 보습 케어



Anano Inc. | 070-7773-9931 |

■ **가양역_메가팜스 가양**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금부빌딩 3층
■ **을지로입구_명동퍼스트약국**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14 눈스퀘어 1층 (T.02-3789-7277)
■ **명동역_Hello K Beauty** / WYNN (Currency Exchange, ATM, LUggage)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6길 6, 원스환전소 2~3층
■ **양재역_메디피아 약국**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42, 크리스탈빌딩 1층 (T.02-3463-1547)
■ **신논현역_비비 약국**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76, urbanhive 지하 2층 (T.02-542-8559)
■ **해슬리 나인브릿지** / 경기도 여주시 명품1로 76 (T.031-887-9999)
■ **제주 나인브릿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로 34-156 (T.064-793-9999)

전남광주시, '유사·중복' 공공기관 22곳 → 11곳 통합 속도

기관 41곳 중 22곳 통합대상 지정
기관 간 자율 협의로 갈등 최소화
연내 정비 마쳐 내년 초 출범 계획
조직 체계, 보수·복지 등 진통 예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70일을 맞은 8일 오전 전남광주 서구 하늘에서 바라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광주청사의 모습. /뉴시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옛 광주시와 전남도의 산하 공공기관 41곳 중 유사·중복 기능을 가진 22곳을 11곳으로 통폐합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6개 기관이 자율 협의로 통합 방식을 합의한 가운데, 일부 기관은 이견 조율과 후속 정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18일 전남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옛 광주시와 전남도 산하 공공기관 41곳 중 명칭이나 기능이 유사한 22곳을 통합 대상 기관으로 정했다. 이들 통합 대상기관은 1대1 통합을 통해 11개 분야별 각 통합 기관 1곳으로 재편한다.

추진 방식은 당초 검토한 조직 진단이 아닌 기관 간 자율 협의다. 갈등과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통합 대상인 두 기관과 노사 대표,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담조직(TF)에서의 기관 간 자율 협의로 통합을 이끌어내는 방식이다.

시는 통합 5대 원칙으로 유사·중복 기능 통합, 고용 승계, 불이익 방지, 신속 통합, 기관 주도 자율·책임 통합 등을 제시했다.

11개 통합 대상 분야 중 8개 분야, 즉 16개 공공기관은 서로 통합 방식에 합의했다.

통합이 본격 추진되는 분야는 ▲개발(광주도시-전남개발공사) ▲관광 진흥(광주관광공사-전남관광재단)▲시정연구(광주-전남연구원) ▲정보문화산업 진흥(광주-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신용보증(광주-전남신보재단)▲중소기업 및 노사관계 지원 (광주상생일자리재단-전남중소기업진흥원)▲문화사업(광주-전남문화재단) ▲평생교육 진흥(광주-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등이다.

전남광주시는 다음 달까지 남은 분야도 접점을 찾아 조례안 초안을 마련하고, 합의된 기관부터 시의회 심의 등 입법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임원 선임과 정관 정비를 마쳐 내년 초 통합 공공기관을 동시 출범시킨다는 구상이다. 다만, 조례 제정 이후에도 각기 다른 조직·직급 체계와 보수·복지 기준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과거 광주관광공사 출범 당시 내홍을 겪으며 정관 마련에 2년이 소요된 선례가 있는 만큼, 시의 세심한 후속 관리와 지원이 성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전남광주=양수녕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고양시, 람사르습지도시 국제인증 도전

한강하구 자리한 장항습지 품고
신청도시 평가서 국내 후보도시 선정


고양시 장항습지 전경.

한강하구 장항습지를 품은 고양시가 국제적인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을 향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고양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실시한 '제4차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신청도시 평가'에서 국내 후보도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국내 후보도시로 이름을 올린 곳은 고양시와 경남 고성군, 경북 영양군 등 3곳이다. 고양시는 앞으로 국제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28년 열리는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최종 인증을 받는다는 목표다.

고양시가 국제인증에 도전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은 장항습지다. 한강하구에 자리한 장항습지는 약 5.95㎢ 규모로, 한강에서 내려오는 담수와 서해의 조석이 만나는 독특한 생태환경을 갖추고 있다.

습지 곳곳에는 버드나무 군락과 갯골, 농경지 등 다양한 서식환경이 형성돼 있다. 재두루미와 저어새를 비롯한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며 철새들의 중간기착지이자 월동지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청양군, 논 범용화 용수 공급체계 구축

전국 첫 추진… 472억 투입

충남 청양군이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용수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다양한 작물 재배가 가능한 영농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청남지구 논 범용화 용수 공급체계 구축사업'이 본격화된다.

청양군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의 시행계획이 지난주 충청남도 고시를 통해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벼농사 중심의 농업용수 공급체계를 개선해 논에서도 원예작물 등 다양한 작물을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용수 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농업 기반 정비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청양군 장평면과 청남면 일원 10개 리로, 총사업비 472억 400만 원이 투입된다. 재원은 국비 80%, 도비 6%, 군비 14%로 구성되며,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31년까지다.

주요 사업은 양수장과 정수·가압장 1개소 설치, 총연장 59.6㎞에 달하는 급수관로 113조 구축 등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총 677.6ha의 농경지에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존 논 중심의 용수 공급체계를 다양한 작물 재배에 적합하도록 개선함으로써 농업용수 이용 효율을 높이고, 원예작물의 품질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군은 시행계획 승인에 따라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오는 11월 사업 발주를 목표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업을 위탁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홍열 청양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업용수 공급 여건을 개선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충남)=양대승 기자 zzica@

영주시, 호남에 특산물 '인삼·홍삼' 알려

'영호남 문화대축전' 참가


광주광역시 쌍암공원에서 열린 '영호남 문화대축전'에 마련된 영주시 농특산물 판매부스에서 방문객들이 풍기인삼과 홍삼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경북 영주의 대표 특산물인 풍기인삼이 영호남을 잇는 문화교류의 장에서 새로운 소비시장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지역의 경계를 넘어 소비자와 직접 만나고, 영주 농특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알리는 현장 중심의 판촉 활동이 펼쳐졌다.

영주시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광주광역시 쌍암공원에서 열리는 '영호남 문화대축전'에 참가해 풍기인삼과 홍삼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 농특산물의 판로 확대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영주지역 업체인 일품인삼사가 참여해 인삼과 홍삼 제품을 선보이며 호남지역 소비자들에게 영주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소개했다.

행사장에 마련된 영주시 판매부스에서는 방문객들이 인삼과 홍삼 제품을 직접 살펴보고 시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품별 특징과 품질을 설명하는 홍보·판매 활동도 함께 진행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영주 농특산물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호남지역 소비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영주(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경북도, 영화·드라마 촬영 유치 박차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과
'경북 로케이션 팸투어' 진행

경북도와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이 영화·드라마 제작사에 지역 촬영지를 소개하고 실제 촬영 유치를 위한 협력에 나섰다.

경북도와 진흥원은 15일부터 16일까지 안동그랜드호텔과 안동·영주 일원에서 '2026 경북 로케이션 팸투어 - 촬영은 경북에서!'를 개최했다. 제작사와 시·군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15일 열린 촬영지 제안 상담에서는 영화 '수기안토 이야기(가제)', MBC 드라마 '효녀구복이', tvN 드라마 '해오름달 열이레' 등 6편의 제작사가 작품 내용과 촬영 계획을 발표했다. 경북도와 시·군은 작품에 맞는 촬영지를 소개하고 행정지원과 촬영 협조사항을 논의했다.

사전 신청한 10편 이상의 작품에 대해서도 제작사와 시·군 간 1:1 촬영 상담을 진행했다. 인플루언서 30여 명은 촬영지 영상을 SNS에 게시했다.

16일에는 제작사 관계자들이 안동 군자마을과 해상 촬영장, 월영교 일원을 방문해 사극 촬영지와 야간경관 등 작품 배경으로 활용할 공간을 살폈다.

경북도와 진흥원은 2020년부터 로케이션 지원사업을 통해 영상콘텐츠 37편을 지원했으며, 촬영 제작비 45억원 이상이 지역에서 소비됐다. 지난해 팸투어에 참여한 KBS2 '문무'와 tvN '오싹한 연애' 등은 경주·안동·문경·예천에서 실제 촬영으로 이어졌다.

박찬우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팸투어를 통해 소개한 작품들이 실제 촬영으로 이어졌다"며 "촬영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더 많은 영화와 드라마가 경북에서 촬영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지역 이모저모

사천시

에어쇼·항공우주 전시 즐겨요

경남 사천시가 '사천에어쇼' 기간인 22일부터 25일까지 사천항공우주과학관과 KAI 항공우주박물관을 무료 개방한다.

사천시에 따르면 이번 무료 개방은 에어쇼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항공우주 전시와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무료 관람은 누구나 가능하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입장권 발권은 오후 5시에 마감된다. 가상현실(VR) 체험과 4D 영상관 등 일부 프로그램은 별도 요금이 부과된다.

/사천(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산청군

대원사 계곡길 연장구간 개통

산청군은 16일 삼장면 유평마을(삼거리마을)에서 대원사계곡길 연장구간 개통식을 열고 탐방객 맞이에 들어갔다.

이번 개통으로 기존 3.5㎞ 탐방로에 1.5㎞가 더해져 대원사계곡길은 총 5.0㎞로 늘었다. 군은 자연 친화형 데크로드와 휴게쉼터, 전망대 등을 함께 확충했다.

개통식에는 유명현 산청군수, 안천원 산청군의회 의장, 경남도·산청군의원,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장, 대원사 주지스님, 지역 주민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경과보고와 테이프 커팅, 신규 탐방로 걷기 순으로 진행됐다.

/산청(경남)=이정민 기자 metrobusan6@

인천시

GTX-B 추가정거장 심사 통과

인천시가 지난 16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추가정거장 건설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인천대입구역과 인천시청역 중간인 청학사거리 일원에 정거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인천시가 전액 부담하며 사업 기간은 2027년부터 2033년까지다. 시는 민간사업시행자와의 위·수탁협약 체결을 위한 시의회 동의와 내년도 사업예산 확보 등 후속 절차를 원활히 진행해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이숙영 기자 sy1321@

봉화군

한-베 글로벌 교류행사 열어

베트남 지방정부가 리 왕조 이용상 왕자의 고려 정착 800주년을 기념해 왕조를 상징하는 용 조각상을 경북 봉화군에 기증했다.

봉화군은 지난 17일 봉성면 충효당 일원에서 '이용상 왕자 한국 정착 800주년 기념 한·베 글로벌 교류행사'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베트남 박닌시가 직접 제작해 봉화군에 기증한 리 왕조 양식의 용 조각상은 800년 전 시작된 양국의 역사적 인연을 오늘날의 문화교류로 이어가는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봉화(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유통업계, 외국인 관광객 서비스 강화… 실적개선 속도낸다

롯데百, '투어리스트 멤버십' 개편
현대百, AI 쇼핑 어시스턴트 고도화
이마트24, 명동 등 특화점포 선봬



롯데백화점 본점 1층 무인키오스크에서 외국인 고객들이 '롯데 투어리스트 멤버십x체크인서울' 카드를 발급받고 있다.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10층 에피원(EP.1)에서 직원들이 현대백화점 '월드패스'를 소개하고 있는 모습. /현대백화점그룹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유통업계의 주요 고객층으로 자리 잡으면서 유통업계의 외국인 대상 마케팅이 확대되고 있다. 외국인 전용 멤버십과 쇼핑 혜택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관광 정보 제공, K패션·K뷰티 콘텐츠 강화 등에 나섰다.

18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1~8월 방한 외국인은 1504만843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관광 분야 카드 소비액도 14조180억원으로 48.5% 늘었다.

방한 외국인 고객이 매출의 큰 축으로 떠오르면서 백화점들은 관련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외국인 전용 쇼핑 혜택 카드인 '롯데 투어리스트 멤버십'을 확대 개편했다. 지난해 12월 처음 선보인 이 카드는 백화점 쇼핑 5% 할인과 롯데 계열사 혜택, 교통카드 기능 등을 제공한다. 현재 본점과 잠실점, 부산본점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누적 발급량은 25만장을 넘어섰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나섰다. 챗GPT 등 생성형 AI가 여행이나 쇼핑을 추천할 때 롯데백화점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소개하도록 콘텐츠를 최적화하는 'GEO(생성형 AI 검색 최적화) 마케팅'을 추진한다. 모바일 앱의 AI 쇼핑 챗봇 '더스틴'에도 지난 4월부터 다국어 서비스를 도입했다.

신세계백화점도 외국인 전용 쇼핑 혜택과 콘텐츠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11일까지 주요 점포에서 외국인 대상 '신세계 글로벌 쇼핑 페스타'를 진행했다. 패션·뷰티·K푸드 등 120개 브랜드가 참여해 쇼핑 바우처 등의 혜택을 제공했다.

외국인 대상 '글로벌 멤버십'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가입 인원은 전 세계 120여개국 30만명을 넘어섰다. 외국인 전용 퍼스널 쇼퍼 서비스도 제공한다.

신세계사이먼은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의 외국인 대상 '원데이 투어'를 이달부터 주 7회로 확대했다. 오는 23일에는 외국인 관광객 전용 '투어리스트 인포메이션'을 열고 쇼핑 정보 등을 제공한다.

현대백화점은 AI 쇼핑 어시스턴트 '헤이디 글로벌'에 지난 6월 실시간 음성 번역 기능을 추가했다. 해외 유통·관광 사업자와 제휴해 외국인 VIP 고객 서비스도 확대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삼성역 일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월드패스' 바우처도 선보인다. 더현대 서울에는 구매 물품이나 여행 가방을 공항·호텔로 배송하는 '러기지 딜리버리' 서비스를 도입했다. 내년 1월에는 글로벌 VIP 전용 공간인 'PSR'을 열 계획이다.

패션·뷰티·편의점 업계는 또한 외국인에 대응하고 있다. LF의 프리미엄 캐주얼 브랜드 헤지스는 서울 명동 플래그십 스토어 '스페이스H 서울'의 전체 구매 고객 중 외국인 비중이 64%에 달하면서 관련 마케팅을 크게 강화했다.

헤지스는 외국인 크리에이터를 활용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4~6월 운영한 '헤지스 틱톡 크루' 1기에는 21명이 참여해 콘텐츠 150여개를 제작했으며 누적 조회수 129만회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명동 '스페이스H 서울'의 외국인 방문객과 매출은 직전 3개월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신세계백화점의 뷰티 편집숍 시코르는 올해 4월 명동점과 홍대점의 외국인 매출 비중이 각각 90.2%, 91%에 달했다. 두 점포의 스킨케어·뷰티 디바이스 매출은 1월 대비 2.5배 이상 증가했다. 시코르는 국내 뷰티 편집숍에서는 찾기 힘든 뷰티 디바이스 상품군을 적극 확대하는 한편, 전문 라이선스를 보유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매장에 상주하며 컬러 진단과 터치업 서비스, 맞춤형 제품 추천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마트24는 서울 명동·성수·서울숲 등 상권 특성에 맞춘 실험 점포를 잇달아 선보였다. 명동 K푸드랩은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해 라면과 분식뿐 아니라 K팝·뷰티까지 한 공간에 모았다. 환전 등 관광 관련 서비스도 갖췄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삼립, 호떡 등 K-디저트 소개… "새로운 사업기회 발굴"

시알 파리 2026

'K-디저트 아뜰리에' 주제 부스
전시 대표제품 '삼립호떡' 선정

삼립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 3대 식품박람회 '시알 파리(SIAL Paris 2026)'에 참가해 호떡과 약과 등 K-베이커리 제품을 선보인다. 미국 코스트코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비롯해 40여 종의 제품을 소개하고 글로벌 사업 확대에 나선다.

시알 파리는 17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국제 식품박람회로 올해 130여개국 8000개 기업이 참가한다. 삼립은 이번 전시의 대표 제품으로 1974년 출시된 '삼립호떡'을 선정했다. 이와 함께 미국 코스트코에 입점한 '소프트 치즈케이크'와 '미니 보름달', 삼립호빵과 약과, 크림빵 등을 소개한다. 하이면과 소스, 육가공 제품 등도 함께 선보인다.

전시 부스는 'K-디저트 아뜰리에(K-Dessert Atelier)'를 주제로 한국 전통 민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꾸민다. 전통 설화와 제품을 연계한 콘텐츠를 통해 K-디저트의 문화적 특성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삼립은 글로벌 사업을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삼고 해외 매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기업설명회(IR)에서는 현재 약 750억원인 글로벌 매출을 2030년 5000억원 규모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미국 코스트코 등에서 확보한 사업 경험을 다른 지역과 유통채널로 확산하는 '글로벌 스케일 모델'도 구축할 방침이다.

삼립 관계자는 "올해 미국 시장에서 소프트 치즈케이크를 비롯한 K-베이커리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지난 1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시알 파리 2026' 삼립 단독 부스에서 삼립 정인호 대표이사(사진 앞줄 맨 오른쪽)가 해외 바이어에게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삼립

신세계그룹, 30일부터 '쓱데이' 행사

이마트 등 18개 계열사 참가

신세계그룹이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10일간 18개 계열사가 참여하는 '대한민국 시그니처 세일' 쓱데이를 개최한다.

올해 쓱데이의 캐치프레이즈는 '대한민국 시그니처 세일'로,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상품들을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먼저 이마트에서는 한우 농가와 반년 전부터 기획한 '반값 한우'를 선보인다. 일반 한우는 50%, 브랜드 한우는 최대 50% 할인한다. 위스키·와인 한정판 상품도 판매한다. 싱글몰트 스카치위스키 브랜드 '글렌알라키'의 이마트 단독 캐스크 라인에 곤룡포 디자인을 접목한 한정판 '글렌알라키 16년 코리아 익스클루시브 리미티드 에디션'을 선보인다.

신세계L&B는 나파밸리 와이너리 '쉐이퍼'가 설립 이후 처음 선보이는 익스클루시브 라인인 '쉐이퍼 파운더스 패스'를 쓱데이 단독 출시한다.

신세계백화점은 러닝 시즌을 맞아 아디다스 러닝화 '갤럭시런'을 할인 판매한다.

조선호텔앤리조트는 '더 조선호텔 디퓨저 컬렉션'을 쓱데이 기간 한정해 30% 할인한다. 조선호텔의 공간과 분위기를 재해석한 홈 프래그런스 3종 컬렉션이다.

신세계면세점은 '랑콤' 등 글로벌 뷰티·패션·주류 상품을 최대 70% 할인하고, '토리버치' 등 럭셔리 브랜드는 최대 60% 할인한다. 신세계까사는 패브릭 소파와 가죽 침대 등을 최대 50% 할인한다.

본행사에 앞서 사전 이벤트도 진행한다. 10월 30일 행사 시작 전까지 기대되는 시그니처 상품에 투표하는 '마스터시그니처 369 투표 이벤트'가 쓱닷컴 앱과 홈페이지에서 열린다. 매일 접속해 투표할수록 혜택이 커진다.

/김서현 기자

롯데, '제2회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성료

임직원 가족 등 1만7000여명 참여

롯데는 지난 16일 '제2회 롯데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롯데그룹과 롯데그룹노동조합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롯데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은 그룹 임직원과 가족을 초청해 한 해 성과를 격려하고 노사화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행사다. 지난해 롯데월드 어드벤처 서울 전체를 대관해 처음 열었으며, 올해는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에서도 행사를 동시에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롯데그룹 임직원 및 가족을 비롯해 그룹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맘(mom)편한 가족상' 수상자, '맘편한 꿈다락' 아동, 롯데 장애인 스포츠단 소속 선수 등 1만7000여 명이 참여했다.

롯데는 올해 임직원 가족을 위한 콘텐츠를 강화했다. 바이오, 이차전지 소재 등 롯데의 신성장 동력을 주제로 한 대형 그림 도안을 설치해 참가자들이 함께 색을 칠하며 그룹의 미래 사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계열사별 가치와 개성을 담은 메시지 배너도 행사장 곳곳에 전시했다.

다자녀 임직원과 장애인 스포츠단 선수 가족을 위한 초청 행사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롯데는 올해 셋째 자녀를 얻은 직원 가족에게 카니발 차량 모형 키와 유아차, 과자 선물세트 등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2026 자이언츠배 롯데그룹 야구대회'에서 2년 연속 우승한 롯데글로벌로지스에 대한 시상식과 롯데가족 노래자랑을 진행했다. 로티와 로리, 벨리곰 등 롯데 캐릭터들도 행사장 곳곳에서 참여자들과 포토타임을 가졌다. 경품 행사를 통해 롯데가 후원하는 골프단, 롯데 스키·스노보드팀 소속 선수들의 친필 사인이 담긴 굿즈도 증정했다.

/김서현 기자

세븐일레븐

'캡틴큐' 특가 기획전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캡틴큐360ml' 정식 출시를 기념해 고객 프로모션에 나선다.

세븐일레븐은 21일부터 31일까지 11일간 특가 기획전을 열고 우리카드로 '캡틴큐' 구매 시 20% 할인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캡틴큐는 1980년 롯데칠성음료에서 출시된 양주 브랜드로 출시 1년 만에 1000만 병 판매를 돌파한 상품이다. 2015년을 끝으로 단종됐으며, 이후 약 10년간 소비자들 사이에서 회자됐다. 35도의 고도주로 애주가들 사이에서 '다다음 날 깨어나 숙취가 없는 술'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다시 돌아온 캡틴큐는 병, 캡, 라벨 등의 초기 디자인 콘셉트와 브랜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주질을 개선했다. 정통 캐리비안 럼 원액을 99% 사용해 달콤한 향을 더했으며, 버번 캐스크에서 1차 숙성한 뒤 스페인산 페드로 히메네즈 캐스크(Pedro Ximenez Cask)에서 추가로 숙성해 오크와 럼의 풍미를 살렸다.

/김서현 기자

더벤티

'아그작 딥라떼' 출시

커피 프랜차이즈 더벤티가 라떼에 바삭한 식감을 더한 신메뉴 '아그작 딥라떼'를 출시했다.

신메뉴는 깊은 풍미의 딥라떼 베이스에 데메라라 슈가를 더한 것이 특징이다. 데메라라 슈가는 사탕수수에서 얻은 설탕을 큰 결정 형태로 가공한 것으로, 씹을 때 느껴지는 바삭한 식감과 은은한 캐러멜 풍미를 낸다.

부드러운 우유와 어우러져 기존 라떼와 차별화된 맛과 식감을 제공한다.

/신원선 기자

닭 발골부터 요리경연까지… 익산에 차려진 'K-푸드 기지'

르포

NS푸드페스타 2026 익산

하림 퍼스트키친 일원서 열린 지역·기업·청년 잇는 식품문화축제 행사장 내 '하림그룹존' 등 마련


NS홈쇼핑이 16,17일 전북 익산시 하림 퍼스트키친 일원에서 'NS푸드페스타 2026 익산'을 열었다. /김서현 기자


16일 전북 익산시에서 'NS 푸드페스타 2026'가 열렸다. 현장을 찾은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행사장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전국의 요리 실력자부터 식품기업, 청년 창업가까지 익산에 모였다.

NS홈쇼핑이 전북 익산시와 함께 지난 16, 17일 전북 익산시 하림 퍼스트키친 일원에서 열린 'NS푸드페스타 2026 익산'을 개최했다.

올해로 19년 차를 맞은 NS푸드페스타는 익산시와 NS홈쇼핑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하림그룹 등이 후원하는 식품문화축제다.

행사 기간 동안 전국요리경연대회와 미식투어, 쿠킹쇼, 음식문화 강연, 청년창업 페스타 등 20여 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익산의 특색있는 음식과 농특산물을 비롯해 하림그룹의 식품 계열사의 신선식품과 인기 상품을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부스들이 마련됐다.

16일 직접 방문한 NS푸드페스타 2026 익산은 하림그룹과 익산시의 축제이자 동시에 식품 문화의 최첨단 기지였다.

조항목 NS홈쇼핑 대표이사는 환영사에서 "17회째를 맞은 NS푸드페스타는 청년과 기업, 지역사회의 상생 기반을 다지고 대한민국 식품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가족, 친구, 지인과 함께 참여해 현장에서 다양한 음식을 맛보고 즐겼다.

행사장 입구에는 '하림그룹존'이 마련돼 프레쉬마켓, 오드그로서 팝업,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브랜드존, 하림 선물세트존 등이 마련됐다.

하림의 신선식품 플랫폼 오드그로서(ODD GROCER) 부스에서는 정유진 발골 전문가의 닭 발골 시연이 열렸다. 발골 과정에서 각 부위의 특성과 활용 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관람객들의 이해를 도왔다. 팝업에서는 당일 생산·출고 된 신선식품들을 전시했다.

올해 6월 하림그룹에 합류해 처음 팝업존을 차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브랜드존에서는 신선한 식자재와 상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사람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졌다.

2시부터는 미식스튜디오에서 행사 대표 프로그램인 전국요리경연대회가 열렸다. 일반 부문과 가족 부문으로 나뉘어 열렸고 각 부문마다 60개 팀이 참가했다.

일반 부문은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한 최고의 레시피'를 주제로 밀키트 개발을 목표로 한 요리 경연이 이뤄졌다. 심사에는 안유성 명장, 천덕성 명장 등 7인의 심사위원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제한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요리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날 대상은 이재민 씨와 박경애 씨가 출품한 '우렁각시의 한끼는 진실되닭'이 차지했고 3000만 원의 상금을 받았다. 최우수상엔 정연미·강세연 팀의 '유자프레와 명란버터를 채운 돈까스·참깨명란크림소스'이, 우수상에는 '춘장 없는 김짜장 세트'와 '된장 크림 미나리 수제비'가 선정됐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 부문 대회는 축제 2일차인 17일에 열렸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는 '삼삼한 요리경연대회'도 연계 개최돼 나트륨과 당류를 줄이면서도 맛을 살린 건강한 요리를 선보였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은 행사장을 둘러보며 참가자와 임직원들을 만났다. 김 회장은 오드그로서에서 닭 발골 과정을 지켜보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서는 시식 사과를 직접 맛보기도 했다. 이어 지역 식품기업과 청년 창업가들의 부스를 둘러보며 'Great Iksan 청년창업페스타'의 청년들의 제품을 유심히 살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동국제약, '마데카 크림' 한정판 2종 선봬

마데카 크림 누적 판매량 1억개 돌파 동국제약 창립 58주년 기념 출시

동국제약이 반세기 제약 기술로 완성한 독자 성분으로 저속 노화를 위한 고효율 스킨케어를 제안한다.

동국제약은 더마 화장품 브랜드 센텔리안24에서 '마데카 크림' 누적 판매량 1억개 돌파와 '동국제약' 창립 58주년을 기념해 한정판 세트 2종을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피부 과학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피부 고민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다.

우선 '마데카 크림 에이징 포커스 스페셜 세트'에는 이마, 눈가, 팔자, 입가 등 주요 부위 주름과 탄력을 집중 개선하는 크림과 마스크팩을 담았다. '마데카 크림 타이트 리프팅 스페셜 세트'는 피부 탄력은 물론 피부 보습을 강화하고 기미, 잡티 등을 피부 흔적을 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센텔리안24 '마데카 크림 에이징 포커스 스페셜 세트'. /동국제약

두 패키지 모두 58주년 기념 엠블럼을 적용하고 레드와 화이트, 딥 퍼플과 골드 등 브랜드를 상징하는 색상을 조합해 소장 및 선물 가치까지 갖췄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마데카 크림 1억개 판매라는 성과는 동국제약의 피부 과학을 믿어준 고객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세대와 피부 고민을 아우르는 차별화된 더마 솔루션을 지속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동아제약 '템포', 낮에도 입는 팬티형 생리대

'템포 컬러팬티 스킨' 선봬

동아제약의 여성용품 브랜드 템포가 '팬티형 생리대' 영역을 밤에서 낮으로 넓힌다. 여성용품 시장에서 편안함과 활동성을 결합한 새로운 제품을 제시하며 브랜드 입지를 다진다.

템포는 낮 시간에도 속옷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는 데이용 팬티형 생리대 '템포 컬러팬티 스킨'을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일반적인 속옷처럼 얇은 두께감, 가벼운 착용감, 자연스러운 색상을 갖췄다. 59개의 플리츠 밴드를 적용해 몸을 감싸도록 설계했고, 46cm 롱 패드와 와이드 힙커버가 흡수를 돕는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템포 컬러팬티 스킨은 팬티형 생리대 제품 특유의 안정적인 기능은 유지하면서 낮 시간대 사용 가능성을 반영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일상과 취향을 세심하게 분석해 라이프스타일 패턴에 맞춘 전략적 제품을 지속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템포가 진행한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팬티형 생리대 이용자의 65%가 낮 시간에도 해당 제품을 착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청하 기자

동국대-제약바이오협회

제약·바이오 인재 양성

공동연구,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동국대학교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손잡고 제약·바이오 분야 인재 양성에 나선다.

동국대는 지난 16일 서울 중구 동국대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제약바이오 산업 분야 산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제약·바이오 분야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기로 했다.

대학과 협회 회원사 간 기술·인력·정보 교류도 확대한다. 동국대는 협회 회원사 재직자를 대상으로 산학협력 장학금 등 교육 지원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김수정 기자 kcrystal@

적색육 논쟁에… "섭취량·조리법 따져야"

한우자조금, 영양 특성·섭취 방식 정리 美 식이지침, 단백질 공급원 섭취 권고

적색육을 둘러싼 건강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먹는 양과 조리법, 함께 곁들이는 음식까지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18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한우자조금은 적색육의 영양 특성과 식단 속 섭취 방식을 정리한 자료를 발표했다.

한우자조금은 미국 보건복지부와 농무부가 발표한 '2025~2030 미국인 식이 지침'을 근거로 들며,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과 다양한 단백질 공급원의 섭취를 권고했다. 육류와 가금류, 해산물, 달걀 등 동물성 단백질뿐 아니라 콩류와 견과류 등 식물성 단백질도 식단에 고루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적색육의 영양 구성도 짚었다. 적색육에는 단백질 외에도 철분, 아연, 비타민 B12가 들어 있으며, 철분은 체내 산소 운반에, 아연은 면역 기능 유지에, 비타민 B12는 신경계 기능과 적혈구 형성에 관여한다고 설명했다.

한우 섭취 요령도 제시했다. 한우자조금은 지방 함량을 고려해 부위를 고르고, 지나치게 태우거나 양념을 많이 쓰는 조리법은 피하도록 권했다. 채소와 버섯, 콩류, 통곡물을 함께 먹으면 식단의 영양 구성이 다양해진다고 덧붙였다.

한우자조금은 개인의 영양 상태와 섭취 빈도, 조리법 등에 따라 식품의 영양적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정 식품을 무조건 피하거나 섭취량을 늘리기보다 식단 전체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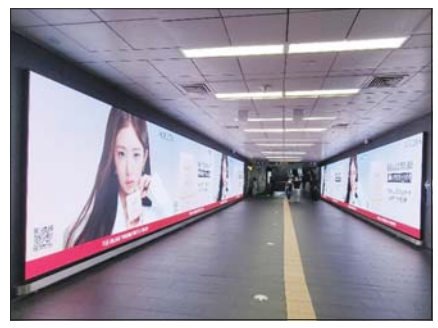
애경산업 '에이지투웨니스' 대규모 캠페인

서울 주요 상권서 옥외광고 진행

애경산업이 스킨 퍼스트 메이크업 브랜드 에이지투웨니스(AGE20'S) 브랜드 철학을 알린다. 화려한 덧칠보다 피부 본연의 본질적 가치를 강화해 K뷰티 경쟁력을 높인다.

애경산업은 서울 강남, 홍대 등 주요 상권에서 핵심 생활 동선을 중심으로 대규모 옥외광고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출퇴근이나 쇼핑 상황에서 신제품 접점을 늘리는 동시에 브랜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스킨 퍼스트 히든 프렙 파운데이션 팩트'는 브랜드 최초로 프렙과 파운데이션을 하나의 팩트에 담아낸 제품이다. 메이크업을 준비하며 피부를 정돈하는 제품인 프렙과 본격적인 색조 단계에서 활용하는 파운데이션을 70:30 최적 비율로 배합했다. 피부에 얇고 균일하게 밀착해 잡티, 모공, 요철 등 피부 결점을 관리해 준다. 또 피부 겉은 보송하면서도 속은 건조하지 않은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다.


서울 홍대입구역 공항철도 연결 구간에 설치된 디지털 전광판에 '에이지투웨니스(AGE 20'S)'가 소개되고 있다. /애경산업

이와 함께 지난 8월 글로벌 앰버서더로 발탁한 K팝 걸그룹 아이브 멤버 레이와 함께 2030 여성 소비자층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청하 기자



2026 제약 · 바이오 포럼

노화를 되돌리다

역노화 기술이 여는 바이오산업의 미래

2026년 10월 21일(수) 오후2시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 행사개요

행 사 명 2026 제약 · 바이오 포럼
주 제 노화를 되돌리다 : 역노화 기술이 여는 바이오산업의 미래
일 시 2026년 10월 21일(수) 14:00~17:10 (VIP 티타임 13:30~14:00)
장 소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주 최 메트로신문, 메트로경제
후 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협회
등 록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문 의 제약 · 바이오 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2시 30분 이후에는 행사장 입장이 불가하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고급 3단 완전자동 양우산을 증정합니다.



● 오시는 길

페럼타워 |
서울시 중구 을지로5길 19
페럼타워 3층 페럼홀
(2호선 을지로입구역 3번 출구)



● 프로그램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구 분	시 간	프 로 그 램
참가등록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개막식	14:00~14:20	〈축사〉 **백종헌** 국회의원 **이재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상근부회장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20~15:00	**권은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노화융합연구단장
강연	15:00~15:30	**전해민** 한미약품 미래성장부문 융합센터 센터장
	15:30~16:00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
	16:00~16:30	**조경아** 메디스팬 대표
	16:30~17:00	**양재현** 카이스트 뇌인지과학과 교수

metro · metro경제



LG생활건강, 시각장애 학생에 안전교육

LG생활건강이 10월 15일 '흰지팡이의 날'을 맞아 한국소비자원과 협력해 시각장애 학생들의 일상생활을 돕는 제품 안전 교육 및 물품 기부 행사를 펼쳤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종로에 위치한 국립서울맹학교에서 열렸으며 생활용품 오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국립서울맹학교 학생들은 생활용품 용기에 표시된 QR코드와 점자 태그를 활용해 제품 정보를 확인하는 실습을 진행했다. /LG생활건강



코웨이라이프솔루션, 시놀과 시니어 서비스 제휴

코웨이라이프솔루션이 액티브 시니어 소셜 플랫폼 '시놀'과 업무협약을 맺고 시니어 라이프를 위한 재혼·결혼 정보 제휴 혜택을 선보인다. 18일 코웨이라이프솔루션(코라솔)에 따르면 시놀은 액티브 시니어의 여가문화를 설계하는 라이프스타일 전문 기업으로, 중장년층을 위한 커뮤니티와 여행을 비롯해 재혼·결혼정보 서비스 '시럽인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코웨이라이프솔루션



풀무원푸드머스, 유아 지구식단 공모전 시상

풀무원푸드머스가 한국식품조리과학회와 함께 유아용 친환경 식단 레시피 공모전을 열고 수상작 10개를 선정했다. 풀무원푸드머스는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열린관에서 열린 한국식품조리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2026 유아 지구식단 레시피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풀무원푸드머스



BNK부산은행, 가을철 지역 일손돕기 봉사

BNK부산은행이 일손이 부족한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임직원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BNK부산은행은 지난 17일 부산지역 7개 현장에서 임직원 200여 명이 참여하는 '가을철 지역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16개 구·군별로 진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부산 전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진행했다. /BNK부산은행

부음 ▲권택인씨 별세, 이종춘 씨 배우자상, 이근수·지영·미영 씨 모친상, 정애련 씨 시모상, 김중건·김민철(제너시스BBQ그룹 커뮤니케이션실 상무) 빙모상=18일, 한도병원장례식장 1호실, 발인 20일 오전 5시30분, 장지 함백산 마도 선영. 031-8040-1444

▲유혜희씨 별세, 이원상(현대로템 RS연구소장·상무)씨 모친상 =18일, 경기 광명시 중앙대학교광명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20일 오전 5시 30분, 장지 서울추모공원·경기 평택시 진위면 선영. 1811-7800

▲이금정씨 별세, 이응재(조선이공대학교 총장)씨 부친상=18일, 국빈장례문화원 403호, 발인 20일 오전 8시20분. 062-606-4000

최태원 "20대로 돌아가면 창업해 인류 난제에 도전"

〈SK그룹 회장〉

EBS 출연해 '위대한 수업'서 강연
사회 난제 해결 위한 창업·도전 강조
졸업장보다 문제 해결 경험 중시
생각의 힘·공감·적응력 역량 제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EBS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강연하고 있다. /SK그룹

"20대로 돌아간다면 무조건 창업을 하고 대한민국이나 인류가 직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에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인공지능(AI) 시대를 살아갈 청년들에게 창업과 도전 정신을 강조했다. 사회가 직면한 난제를 새로운 사업 기회로 삼고,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경험을 쌓아야 한다는 메시지다.

18일 SK그룹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2~16일 닷새간 방송된 EBS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시즌6에 출연해 'AI와 새로운 자본주의 그리고 청년'을 주제로 강연했다. 한국 기업인으로는 처음 출연한 최 회장은 세 차례 강연과 두 차례 청년 문답을 통해 미래 성장 전략과 AI 시대의 일자리·교육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최 회장은 청년들과의 대화에서 "제가 다시 20대로 돌아간다면 무조건 창업을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나 인류가 직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 혹은 고통받는 사람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 부족과 탄소 배출, 식량 부족 등을 해결해야 할 대표적인 과제로 꼽았다.

최 회장은 청년들에게 거창한 목표보다 주변의 작은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조언했다. 최 회장은 "환경과 돌봄, 저출생, 금융 약자 등 사회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다"며 "가슴 속에 있는 걸 그냥 하라"고 강조했다. 작은 문제를 해결한 경험을 축적하면 더 큰 사회적 과제에 도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은 AI 시대의 일자리와 교육도 주요 화두로 다뤘다. 최 회장은 AI가 업무 시간을 단축하면 직업의 개념과 노동의 선택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교육 역시 지식 전달과 시험 중심에서 벗어나 문제 해결과 실험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 졸업장보다 실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중요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AI 시대에 필요한 역량으로는 생각하는 힘과 공감 능력, 적응력, 신체를 활용하는 능력 등을 제시했다. 그는 "AI는 지능을 높여주는 도구이지만 지능이 곧 지혜는 아니다"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사람을 이해하고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청년들이 길러야 할 역량으로 ▲생각하는 힘 ▲공감 능력 ▲적응의 근육 ▲바디 스킬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6주기 추모행사

23일 수원 선영서 추도식·사장단 오찬
이재용 회장 경영 메시지 여부 주목
28일 용인서 추모 음악회 개최 예정



1993년 故이건희 선대회장 신경영 선언. /삼성전자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의 6주기를 앞두고 삼성그룹이 추도식과 추모 음악회를 잇달아 개최한다. 반도체 호황 속 실적 개선에도 주가 부진과 대내외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사장단에 어떤 경영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이 선대회장의 기일 이틀 전인 오는 23일 경기 수원 선영에서 6주기 추도식이 열릴 예정이다. 이 회장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 등 유족, 삼성 사장단이 참석해 고인의 업적과 경영 철학을 기릴 것으로 보인다.

추도식 이후 이 회장과 사장단은 용인 삼성인력개발원 창조관으로 이동해 오찬을 할 전망이다. 창조관은 신입사원 교육장으로, 이 선대회장의 흉상이 설치된 곳이다. 이 회장은 2022년 추도식 당시 사장단에 "더 과감하고 도전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위기 속 선제적 준비와 실력 강화를 강조한 바 있다.

오는 28일에는 용인 삼성전자 인재개발원 콘서트홀에서 추모 음악회를 개최한다. 세계적인 연주자들의 공연이 예정됐으며, 이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와 삼성 사장단, 임직원 등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선대회장은 1987년 삼성그룹 회장에 취임한 뒤 1993년 '신경영 선언'을 통해 대대적인 혁신을 추진했다. /양성운 기자

중앙대, 세계 석학 모여 중성미자 연구 논의

28~30일 국제 워크숍 'NNN26'

중앙대학교가 중성미자 연구와 차세대 입자검출 기술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 학술 행사를 연다.

중앙대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동작구 중앙대 아트센터와 R&D센터에서 입자 물리학 국제 워크숍 'NNN26'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DUNE, Hyper-Kamiokande(HK), IceCube 등 주요 중성미자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과학자를 포함해 국내외 연구자 120여 명이 참석한다.

1999년 시작된 'NNN'은 중성미자 물리학과 핵자붕괴 탐색, 차세대 입자검출기 기술 등을 다뤄왔다. 올해 행사에서는 대형 검출기 설계와 광센서, 데이터 수집 장치 등 실험 기술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인공지능·머신러닝 기반 데이터 분석 및 입자 사건 재구성 기술에 대한 논의도 이어진다.

워크숍에 앞서 오는 26일에는 2017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배리 배리시 교수의 명예 물리학박사 학위수여식이 열린다. 같은 날 오후에는 중력파를 주제로 한 대중 강연도 진행한다.

중앙대 김시연 물리학과 교수 겸 NNN26 조직위원장은 "미래 첨단 기술이 논의되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 입자 물리학 연구진의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고, 세계적 연구 기관들과 지속 가능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kcrystal@

NH농협생명, 강원 인제서 농촌일손돕기

이완진 부사장 등 임직원 25명 참여

NH농협생명은 지난 14일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양배추 농가를 찾아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영농철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지원하고 농촌과 지속적인 상생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촌일손돕기 활동에는 이완진 자산운용부문 부사장을 비롯해 임직원 25명이 참여했다. 임직원들은 양배추 수확이 끝난 약 2000평 규모의 밭에서 농업용 비닐을 걷어내는 등 농경지 정리 작업을 함께 했다. NH농협생명 이완진 자산운용부문 부사장은 "영농철을 맞아 일손이 부족한 시기에 임직원들이 함께 농가를 지원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농업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현대百, 에코백 재활용 '리백' 캠페인

21~30일 무역센터점 식품관서 진행

현대백화점이 고객이 기부한 에코백을 식품관에서 장바구니로 재사용하는 친환경 캠페인을 진행한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무역센터점 식품관에서 현대백화점그룹 멤버십 H포인트 회원을 대상으로 '리백(Re:Bag)'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리백은 고객이 사용하지 않는 에코백을 기부받아 선별과 세척, 재디자인 과정을 거쳐 제작한 장바구니다. 이를 위해 현대백화점은 지난 7월 365 리사이클 캠페인을 통해 고객들로부터 사용하지 않는 에코백 3000여 장을 기부받았고, 총 1500개의 장바구니를 제작했다. 365 리사이클은 현대백화점이 전국 점포를 활용해 불필요한 물품을 기부받아 재활용하는 고객 참여형 친환경 프로그램이다.



현대백화점이 고객 기부 에코백으로 제작한 '리백(Re:Bag)' 이미지. /현대백화점그룹

이번 리백 캠페인은 재활용한 장바구니가 실제 쇼핑 현장에서 순환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서현 기자 seoh@

서울시교육청, 장애인 교원 교육사례 공유

장애인 교원이 교단에서 겪은 시행착오와 해법을 동료 교원들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9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청사 컨퍼런스룸에서 '장애인교원 교육활동 사례나눔'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발표자로 나서는 장애인 교원들은 수업과 학급 운영, 학교 업무를 하며 부딪힌 난관과 풀어낸 방식, 그 과정에서 얻은 성과를 이야기한다. 안내견과 함께 근무하는 상담교사의 사례, 교원학습공동체를 이끌며 동료 교사와 가까워진 경험, 장애·비장애 학생·교사가 함께 하는 통합체육교실 운영 사례 등을 소개한다. /김수정 기자


8평 옥탑방에 모인, 짠하지만 유쾌한 인생들!
오늘도 버틴다!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내가 다해봐서 아는데~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뮤직 드라마
맛원동 브라더스
예매하기
이번엔 진짜 잘될 거야!
티격태격하다가, 어느새 식구가 된다!
2026.10.09 ~ 2027.01.31 | 대학로 루미나아트홀

‘빌려준 돈’으로 바꿔도 퇴직금 먼저



박 규 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ChatGPT

직장인 A씨는 다니던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해 미사용 연차수당 및 퇴직금 약 150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회사 측은 “당장 지급할 여력이 없으니, 해당 금액을 ‘빌려준 돈(차용금)’으로 전환해 5회에 걸쳐 분할 변제하겠다”고 요청했고, A씨는 이를 수락해 해당 채권을 ‘차용금’으로 명시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회사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A씨가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던 시점에 회사에 대한 ‘간이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이에 하급심 법원은 “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A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마6750 결정). 대법원은 회사의 요청에 따라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차용금으로 전환하는 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해당 채권의 실질이 임금 및 퇴직금인 이상 이는 “임금 채무의 변형에 불과할 뿐 별도의 채무로 보기 어렵다”고 명확히 판시했다. 즉, 채권의 명칭을 차용금 등으로 변경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적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실무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실제로 경영 위기에 처한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차용금으로 전환하자”거나 “임금을 대여금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거나, 요구에 응할 경우 보다 신속하게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합의서에 서명하게 된다.

이후 회사가 회생절차에 진입하면, 회사 측은 “해당 채권은 이미 법적으로 차용금에 해당하므로 일반 회생채권에 불과하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었는데, 이번 대법원 결정은 이러한 회사의 주장을 정면으로 차단한 것이다.

법률상 임금 및 퇴직금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며,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타 채권에 우선해 언제든지 변제받을 수 있다. 즉,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더라도 근로자의 임금 채권은 최우선적으로 변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나아가 대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당일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연체이자) 역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 역시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할 수 있게 됐다.

결론적으로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이 같은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어쩔 수 없이 채권의 명칭을 ‘차용금’이나 ‘대여금’으로 하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하더라도, 그 실질이 임금 및 퇴직금이라면 여전히 공익채권으로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회사가 회생절차 개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를 포기하지 말고,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 행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바른

아시안게임이 낳은 ‘신의 아들’



기자 수첩
김 연 세
〈정책사회부〉

‘신의 아들’로 불렸다. 병역 면제자를 두고 하는 말이다. ‘장군의 아들’도 있었다. 6방(6개월 복무 방위병·보충역)이다. 이어 18방(18개월 방위병)은 ‘사람의 아들’이다. 26개월 복무(육군 기준) 현역병은 ‘어둠의 자식’이라고 했다. 지난 90년대에 그랬다.

씁쓸하지만 그만큼 군대란 곳이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여겨지는 것도 사실이다. 아시안게임 때마다 불거졌던 군 면제 문제. 특히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은 오래 기억될 대회. 일본 사회인 팀 간신히 꺾고 금메달 챙긴 한국 야구. 이어진 인터뷰 논란. 급기야 축구 금메달과 일부 선수의 엇나간 태도. 마치 이들은 세상을 다 가진 양 그라운드에서 환호했다. 야구와 축구 2종목에서만 신의 아들이 수십 명 추가됐다. 국민 감정은 폭발했고 병역 특례 폐지론은 10월 여의도 국감장으로 옮겨 붙었다.

단계적 축소 방침이 병무청 등에서 언급된다. 법 개정 등에 따른 특별법 시행이 최소 1년은 걸릴 것이라고도 한다. 이에 반해, SNS 등에는 당장 축구 3인방부터 군대 보내라는 의견도 봇물이다. 이번 사건은 국민 정서를 크게 건드렸다. 대한민국에서 군 입대 여부는 대학입시와 함께 가장 민감한 사안 중 하나로 꼽힌다. 다만 후자의 경우 어떻게 해서든 들어가려는 곳이란 측면에서 전자와 다르다. 편법 등의 의한 면제 또는 공익 근무, 부정한 길을 통한 입학 사례가 드러날 때마다 국민은 분노했다.

다시 국제 스포츠대회로 화두를 돌려 본다. SNS상 혹자는 이렇게 묻는다. “여자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랑 올림픽 메달리스트는 무슨 혜택을 받나요?” 일리 있는 말이다. 여기서부터 이미 공정하지 않다. 군 미필 남자 선수만을 위한 특례 적용이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것이다. 외신도 지적한다. 면제받기 위해 국제대회 나가는 나라라는 낙인이 찍히고 있다. 국위 선양과는 거리가 먼, 오히려 국격을 훼손하는 양상으로 변질됐다.

올해 지구촌 사람들 상당수가 카보베르데라는 작은 섬나라를 알게 됐다. 스포츠를 통한 국위 선양의 단적인 예다. 또 이룰 거 다 이루고도 나이 마흔에 대표팀 유니폼 입고 자국 위상 입증해 보인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 등. 우리와 차이가 많이 난다.

/세종=kys@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19일 (음 9월 9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쥐 **48년생** 마음에 괴로움이 있습니다. **60년생** 정성껏 구하면 재물을 조금은 얻을 수 있습니다. **72년생** 무난하게 현 상태를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84년생** 노력을 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소 **49년생** 마음 고생이 심합니다. **61년생** 사람을 배반하지 마세요. **73년생**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85년생** 시간을 끌면 끌수록 좋지 않으니 서둘러 치료를 해야 할 병이 있습니다.

호랑이 **50년생** 여행은 삼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62년생** 정신적으로 안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74년생** 실패만 거듭될 뿐 득 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86년생** 다음 기회로 미루어 보세요.

토끼 **51년생** 빌어도 소원은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63년생** 마음 편히 즐겁게 사세요. **75년생** 성공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87년생** 단전에 정신을 모으고 마음을 안정하세요.

용 **52년생**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입니다. **64년생** 업무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6년생** 주변의 여건이 너무 맞지 않습니다. **88년생** 물건을 잃어버리는 것도 습관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뱀 **53년생** 모든 일이 잘 풀리는 시기입니다. **65년생** 일마다 여의 하니 천금을 얻을것입니다. **77년생** 너무 자만심을 갖지 마세요. **89년생** 집안에 있는것보다는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떠나세요.

말 **54년생** 혼자서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66년생** 건강을 조심하세요. **78년생** 주변의 친한 친구의 도움을 받아 문제가 해결됩니다. **90년생** 하고 싶은 일이 많고 자신도 있겠으나 참으세요.

양 **55년생** 정신이 건강해야 육체도 건강할것입니다. **67년생** 귀인이 귀하를 도우러 오는 중입니다. **79년생** 독서를 즐겨 보세요. **91년생** 주변의 사람들에게 늘 베풀면서 사세요.

원숭이 **56년생**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68년생** 현재의 막힌 상대를 한탄하지 마세요. **80년생** 돌아오는 것이 큰 것이라 길운입니다. **92년생** 남쪽에 좋은 인연이 있습니다.

닭 **57년생**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합니다. **69년생** 살아왔던 인생을 차근차근 되새겨보세요. **81년생** 꾸준히 노력하세요. **93년생** 귀인을 생각도 못했던 곳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개 **58년생** 여러운 때를 만나 길을 잃고 방황할 수 있겠습니다. **70년생** 과감하게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82년생** 여행은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94년생** 애정운이 길합니다.

돼지 **59년생** 거래는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71년생** 저녁에 맛있는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푸세요. **83년생** 금전운이 매우 좋습니다. **95년생** 항상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김상회의 四季

신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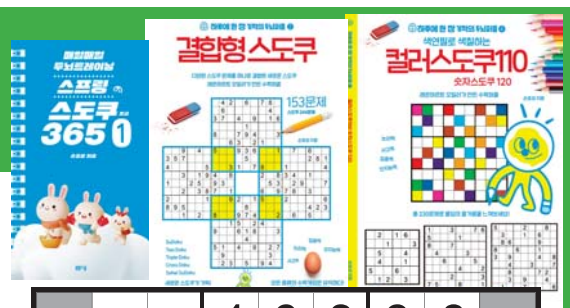
필자의 어릴 적에 신앙촌(信仰村)이라는 곳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신앙촌은 천부교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신앙공동체로서 대법원의 판결을 득하여 고유명사로 인정받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신앙촌에서 만든 간장이나 내의 등이 상품화되어 유통되었던 기억도 떠오르는데, 나름 제품의 질이 괜찮다고 하여 입소문을 타고 꽤나 인지도가 있었다는 생각도 난다. 말이 나온 김에 인터넷을 보니 ‘신앙촌푸드’라는 사이트도 보인다. 신앙공동체 생활을 위한 신도들의 경제적 자립구조를 갖추기 위한 방안으로 이해가 된다. 역시 우리나라의 원불교도 지금은 모르겠으나 초기 발원시기에는 신도들의 조합을 세워 공동경작 등의 경제자립 활동을 하여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특정한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만든 마을이나 집단 구락지로서 전세계적으로도 적지 않은 신앙촌이 있기는 하다. 미국의 유타주는 잘 알려진 것처럼 몰몬교도들의 신앙공동체로 유명한 곳인데,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의 창시자에 대한 테러와 박해를 겪자 미국 중서부로 이주하여 유타주를 설립하고 주도이자 종교촌인 솔트레이크시티를 건설한 것은 기독교의 또 하나의 역사가 되었다. 이보다 규모는 작으나 아미시파도 그러한데, 스위스에서 시작되었으나 편견과 박해를 받자 미국으로 이주한 재세례파 개신교 종파로서 펜실베이니아주, 오하이오주, 인디애나주 등에 종교촌을 이루었다.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신앙촌이 지구상 곳곳에 산재해 있는 것이다. 어떠한 종교가 되었든 모든 종교는 신앙을 근본으로 한다. ‘믿고 우러르는’ 것이 신앙인 것이다. 믿고 우러르는 대표적 행위는 기도이다.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하여 예경을 하며 발원을 고한다. 숨 한 번 고르며 비난하고 싶은 마음을 알아차리며 내려놓는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생각한힘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6	2	7	3				
					2	4		
								1
							4	
	2	9	8		5	3	1	
	1							
8								
		1	9					
				8	7	1	5	

			4	9	3	2	8	
					8			
	7					5		
			3			8		
	2						7	
		8			2			
		9					2	
			1					
	8	5	9	3	7			

문제출제: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2	5	1	7	8	4	6	3	9
4	8	6	3	5	9	1	7	2
9	3	7	6	1	2	5	4	8
6	2	8	9	7	4	3	1	5
5	1	4	3	9	7	8	6	2
7	9	3	8	4	5	2	9	6
3	4	9	1	2	6	7	5	8
8	6	5	4	3	1	9	2	7
1	7	2	5	6	8	4	3	9

2	8	5	9	3	7	4	6	1
7	3	6	1	2	4	9	5	8
4	1	9	8	6	5	7	2	3
9	4	8	6	7	2	3	1	5
1	2	3	5	8	9	6	7	4
5	6	7	3	4	1	8	9	2
8	7	4	2	1	6	5	3	9
3	9	2	7	5	8	1	4	6
6	5	1	4	9	3	2	8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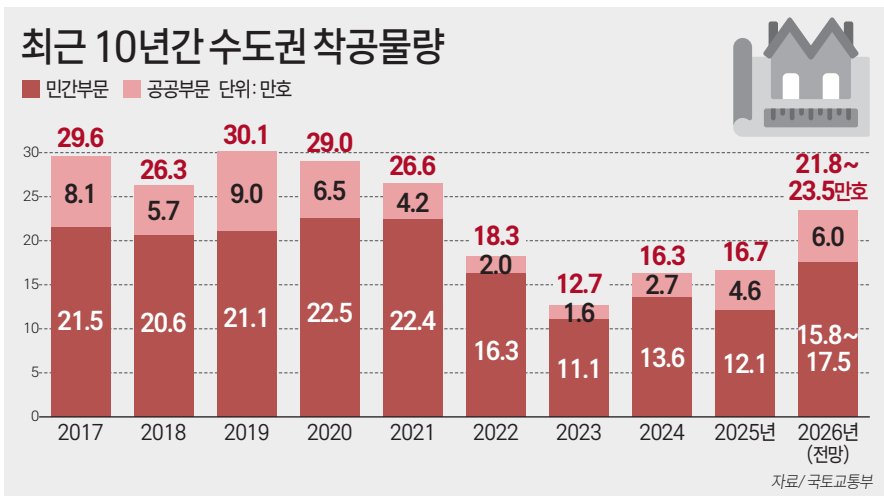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 집 인	이 장 규	편집국장	윤 휘 종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6015호		
일간 메트로경제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119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부동산 공급 확대 외쳤지만… 수도권 착공 목표 37% 그쳐

공공 26%·민간 23.6%에 불과
4년간 매년 31만호 이상 착공해야
단기 주거 안정 효과 '제한적'



정부가 '닥공(닥치고 공급)'이라며 주택 공급에 있어 속도전을 강조했지만 첫해부터 목표 달성은 힘들 전망이다. 정부의 예상치 최대인 23만호를 착공해도 당초 목표치에는 못 미치는 데다 이마저도 남은 두 달여 동안 지난 열 달간 실적보다 더 착공해야 가능한 수치다.

18일 정부의 '주택공급 정례 브리핑'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까지 수도권에서 9만9000호 이상이 착공됐다. 올해 목표치 26만8000호의 37%에 불과하다. 고양창릉·인천계양·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7만3000호를 포함해 공공주택 1만6200호, 신축매입 1만3000호, 흑석11구역·중계본동·신림2 등 민간정비사업 1만7000호 등이다.

정부는 한 달에 두 번 정례브리핑을 통해 착공·분양·입주 등 주택공급 단계별 추진상황과 향후 일정을 공개할 계획이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주택공급은 계획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께 약속한 물량을 실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부처,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원팀이 되어 현장의 걸림돌을 신속히 해소하고, 주요 사업이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21만8000~23만5000호 이상이 착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두 달여 동안 11만9000~13만6000호 이상이 착공해야 가능한 수치로 올해 들어 10개월치보다 많다.

현 정부는 9·7, 1·29, 8·13 등 세 차례 공급대책을 통해 앞으로 5년간 수도권 150만호 이상을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연간 기준으로는 29만8000호 이상이다.

수도권 공급은 착공물량을 기준으로 지난 2019년 30만1000호를 고점으로 2020년 29만호, 2021년 26만6000호에서 2022년 18만3000호, 2023년 12만7000호로 급감했다. 2024~2025년은 각각 16만호 수준으로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평균치를 크게 밑돈다.

올해는 연간 기준보다 3만호 이상 줄인 26만8000호를 목표로 했지만 최대 23만호에 그치면서 향후 4년간 부담은 더 커졌다. 매년 31만7000호 이상 착공해야 150만호 목표가 가능하다. 최근 고점인 2019년 30만1000호보다 많은 수준이다.

부문별로는 공공과 민간 모두 부진하다.

공공주택은 올해 1만6200호를 착공해 목표 6만2000호의 26%만 달성했다. 공공택지에서 3기 신도시 7만3000호 포함 총 1만4200호를 착공했고, 도심에서는 서울 내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을 통해 약 2000호를 착공했다.

민간 정비 역시 목표 7만2000호의 23.6%인 1만7000호만 착공했다.

전·월세시장 안정대책 역시 실수요자들이 체감도는 낮을 것으로 보인다. 단기라고 해도 1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공급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을 뿐 당장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나 전세사기 예방 컨설팅 정도가 전부다.

단기 공급 확대책으로는 공공은 내년 말까지 수도권 공적주택 10만호 입주를 추진한다. 민간은 연내 주택공급지원센터를 설립해 도시생활주택 등의 공급을 지원한다. 안정적인 장기 거주를 위해 임대 역시 제도 마련에 그친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동탄 입지·설계 좋지만 국평 17억 고민"

현장르포

아크메르 동탄

견본주택 문 열기 전부터 북적
동탄1신도시 핵심입지 1808가구



'아크메르 동탄' 견본주택을 찾은 관람객들이 대형 단지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 /성채리 기자

지난 16일 오전 경기 화성시 동탄구 여울동 '아크메르 동탄' 견본주택 앞. 문을 여는 오전 10시30분 전부터 방문객들이 길게 줄을 섰다. 주차장을 갖춘 넓은 부지에도 대기행렬이 이어져 입장객을 세 줄로 나눠 안내할 정도였다.

동탄1신도시 중심부에 들어서는 새 주상복합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고급스럽게 꾸민 실내와 입지에 호평이 나왔지만, 전용 84㎡ 기준 17억원 안팎의 분양가에는 고민이 깊어졌다. 최근 동탄 집값과 신축의 상품성을 고려하면 예상했던 수준이란 반응도 있었다.

아크메르 동탄은 KB부동산신탁이 시행하고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단지다. 반송동 95·99번지 일원에 지하 7층~지상 최고 49층, 7개 동, 총 1808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아크메르 동탄 95'는 3개 동, 전용 84~188㎡ 812가구, '아크메르 동탄 99'는 4개 동, 전용 84~162㎡ 996가구로 구성된다. 커뮤니티시설로는 피트니스와 필라테스실, 골프연습장, 독서실, 어린이집 등이 계획됐으며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화재 확산 방지 시스템도 마련된다.

아크메르 동탄 견본주택에 들어서자 사람 키를 훌쩍 넘는 대형 단지 모형도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조명이 켜진 고층 주거동 앞에서 관람객들은 동 배치와 커뮤니티시설을 살폈다.

2층에는 전용 84㎡A·84㎡C·116㎡A·129㎡B 등 네 가지 유닛이 마련됐다. '하이퍼엔드'를 내세운 만큼 실내는 마감재와 조명, 알파룸 구조 등 고급화에 공을 들인 모습이었다. 2.5m 천장고는 공간이 한층 넓게 느껴지도록 했다. 전 가구에 세대별 전용 창고를 설치하고 가구당 약 1.5대의 주차공간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중대형 타입은 별도 공간을 활용한 설계가 눈길을 끌었다. 116㎡A형에는 소파와 테이블을 놓은 알파룸이 전시됐다. 129㎡B형은 침실 안쪽에 서재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둔 '룸인룸' 구성이 특징이었다.

자녀의 나이와 생활 방식에 따라 선호하는 평면도 갈렸다. 동탄역 인근에 거주하며 중학생 딸을 키우는 이모씨(46)는 84㎡A형을 눈여겨봤다. 그는 "아이와 함께 거실을 많이 쓰는 입장에서는 84㎡A형이 더 넓게 느껴졌다"며 "거실을 공부하는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성채리 기자 cr56@

서울 해제 정비구역 177곳서 사업 재추진

도시재생 등에 1조960억 투입

서울에서 정비구역이 해제됐던 지역 10곳 중 4곳 이상이 다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을 중단한 뒤에도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려는 수요가 이어진 것이다. 서울시는 해제 이후 도시재생사업을 거쳐 다시 정비사업에 나선 지역 등을 근거로 과거 주택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18일 서울시가 공개한 '서울 주택 공급 정책 20년의 평가와 성찰' 백서에 따르면, 2012~2020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389곳 중 177곳에서 정비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전체 해제구역의 45.5%에 해당한다. 당시 해제된 구역은 전체 정비구역 683곳의 약 57%다. 서울시는 이 과정에서 약 43만호를 공급할 기회가 사라졌다고 추산했다.

서울시는 해제구역 상당수가 다시 정비사업에 나선 것을 두고, 사업 중단 이후에도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주민 수요가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정비구역 해제의 대안으로 추진된 보존형 도시재생사업에는 1조원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약 9110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약 1850억원 등 총 1조960억원이다.

이 가운데 도시재생을 거쳐 다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에서는 기존 투자가 매몰비용으로 남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도시재생활성화사업 1632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 8억원 등 총 1640억원을 매몰비용으로 집계했다.

정비구역 해제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해제구역 389곳은 주민 의견조사 없이 직권해제가 가능했던 유형 66곳, 주민 요청이나 의견조사를 거쳤으나 절차 부실 등이 있었던 유형 264곳, 일몰기한 경과 등을 이유로 해제된 유형 59곳으로 파악됐다.

/이현진 기자

HDC현산, 청주 가경동에 1671가구 공급

전용 84~116㎡ 구성

IPARK현대산업개발이 충북 청주시 가경동에 아파트 1671가구를 공급한다. 기존 1~6단지와 합쳐 총 6295가구 규모의 아이파크 브랜드 주거지가 조성된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6일 '청주 가경 아이파크 7·8단지'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섰다.

7단지는 흥덕구 가경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최고 32층, 4개 동, 543가구로 들어선다. 전용면적별로는 84㎡ 204가구, 102㎡ 226가구, 116㎡ 113가구다.

8단지는 가경동 701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9개 동, 1128가구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84㎡ 302가구, 102㎡ 309가구, 116㎡ 517가구다.

두 단지는 전 가구를 남향 위주로 배치한다. 대형 주택형 등에 4베이 판상형 구조를 적용하고, 전용 84㎡ B형에는 이면 개방형 거실을 설계했다.

/이현진 기자 lh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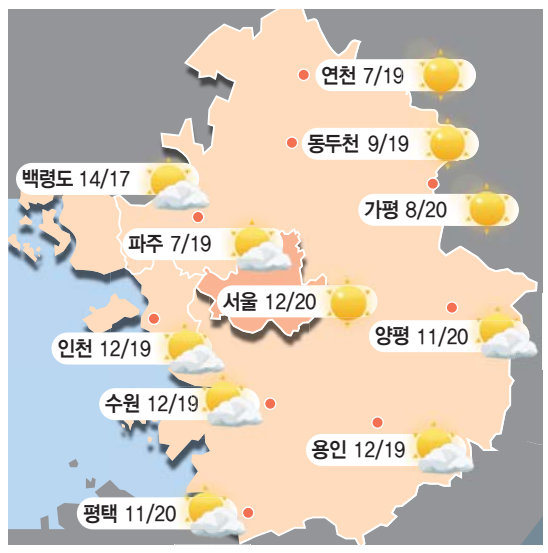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 06:44 | 해짐 / 17:50

10월
19일 (月)
음력 : 9월 9일

수도권 날씨
12~20℃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메트로 한줄뉴스



▲젤렌스키, 트럼프 대러 제재 유예 비판…"푸틴 막을 방법 아니다"
▲美반트럼프 운동, 조기투표 독려로…전국서 '노킹스' 집회 /사진 뉴시스
▲伊밀라노서 물가고 항의 폭동…고급상가 약탈·방화, 경찰과 대치
▲교황, 폐암 수술 나흘 만에 퇴원…집도의 "중남미 순방 문제없어"
▲中, 日 다카이치 야스쿠니 공물 봉납 규탄…"재군사화 가속 행보"
▲후티 진격에 UAE·사우디 다시 손잡아…예멘서 군사협력 재개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61

metroseoul.co.kr

metro® Life

제6015호 2026년 10월 19일 월요일



유통업계
외국인 관광객
서비스 강화
L1

닭발골·요리경연
익산에 차려진
'K-푸드 기지'
L2



"서울 감각에 밀라노 브랜딩 더해 '시간 담은 오브제' 만들죠"

새벽을 여는 사람들

패션 브랜드 '이츠예'
이 예 지 디자이너

한옥의 기와에서 발견한 감상을 의상에 옮기고, 이탈리아 남성복 수트의 정교한 구조를 패션 오브제로 풀어낸다. 2000년생 디자이너 이예지가 이끄는 브랜드 이츠예(It's Yeah)는 익숙한 것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다. 예술과 이야기가 일상 속에서 경험되는 매체로 바라보는 그는 한국 전통 기와와 이탈리아 테일러링의 정교함을 자신만의 디자인 언어로 엮는다.

이 씨는 일찍부터 예술을 공부했다. 서울예술고등학교 디자인과를 거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패션디자인을 전공했고, 21세에 자신의 패션 브랜드를 창업했다. 가방과 쿠튀르를 중심으로 의류를 넘어 오브제까지 영역을 넓혀가는 그는 자신만의 세계관을 구축하고 있다. 서울에서 키운 감각에 밀라노에서 배운 제작 방식과 브랜드 경영을 더해, 유행을 좇기보다 시간이 쌓일수록 특별해지는 물건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❶ 이예지 이츠예(It's Yeah) 창업자·크리에이티브 디렉터. ❷이예지 이츠예(It's Yeah) 창업자 및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지난 2025년 12월 리치몬트 파리 본서에서 임원진에게 이츠예의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❸지난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 일지에서 진행된 패션 브랜드 이츠예(It's Yeah)의 첫 단독 갤러리 전시 팝업 'Milan and Seoul'에 전시된 쿠튀르 라인 'It's Me, It's Yeah'. /이츠예

7세부터 미술 접해… 21세에 브랜드 창업
순수 예술서 입체적인 패션으로 영역 확장
리치몬트그룹 AZ 아카데미 韓 최초 선정
인사동 팝업 열어… 브랜드 세계관 선봬

◆ 한국 디자이너 최초 리치몬트 AZ 아카데미 선정

이 디자이너는 7세부터 미술을 시작해 오랫동안 순수예술과 함께했다. 하지만 그가 관심을 둔 것은 그림이나 조형물 자체에만 머물지 않았다. 공간이 어떤 이야기로 구성되는지, 그 안에서 사람은 무엇을 경험하는지에도 관심이 많았다. 디자이너 출신으로 경영 활동을 했던 어머니의 영향도 컸다. 어머니를 보며 디자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넓어졌고, 창작과 경영을 함께 고민하는 시각도 자연스럽게 익혔다.

패션은 이 씨가 그동안 쌓아온 관심을 실제 삶에 가까운 형태로 구현할 수 있는 매체였다. 옷과 가방은 예술과 공간, 스토리텔링을 일상 속에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에게 패션 브랜드를 시작한 일은 순수예술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택한 것이 아니었다. 예술을 공부하며 키운 시선과 공간에 대한 관심을 새로운 매체로 확장하는 과정에 가까웠다. 이 씨는 "저에게 패션은 단순히 옷과 가방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입고 사용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입체적인 디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관점은 브랜드 운영에 대한 고민으로도 이어졌다. 이 씨는 리치몬트 그룹의 'AZ Academy: Business Program for Designers' 첫 기수에 한국인 디자이너 중 유일하게 선정됐다. 이 프로그램은 리치몬트 그룹이 유망한 독립 디자이너를 발굴해 창작 역량을 사업 경쟁력으로 연결하도록 지원하는 전문 프로그램으로, 마스터클래스와 멘토링 등을 통해 브랜드 운영부터 생산·유통, 고객 관계, 글로벌 시장 전략까지 지원한다.

프로그램을 통해 그가 새롭게 인식한 것은 디자인과 사업의 연결성이었다. 이 씨는 "좋은 제품은 단순히 아름답거나 정교하게 만들어지는 것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느꼈다"며 "디자인의 의도와 브랜드의 비전, 소재와 제작 과정, 사용성과 시간이 모두 하나의 방향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의 감각과 밀라노의 기술을 한 곳에

이러한 고민은 브랜드의 중장기 전략을 세우는 과정으로도 이어졌다. 이예지는 2025년 12월 프랑스 파리 리치몬트 그룹 본사에서 임원진을 대상으로 이츠예의 5개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그 과정의 일환으로 지난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 일지에서 이츠예의 첫 단독 갤러리 전시 팝업 'Milan and Seoul'을 진행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소개해 온 밀라노 컬렉션을 오프라인 공간에서 선보이고, 의류와 가방, 오브제를 하나의 브랜드 세계관 안에서 경험하도록 기획한 자리였다.

이 씨가 브랜드의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서울과 밀라노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한다. 서울에서는 새로운 이미지를 받아들이고 익숙한 것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감각을 키웠다면, 밀라노에서는 디자인을 실제 제품과 브랜드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는 "서울이 저에게 새로운 아이디어와 감각적인 에너지를 준다면, 밀라노는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체적인 제품과 브랜드 시스템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 가르쳐줬다"고 말했다.

팝업은 리치몬트 그룹 임원진으로부터 받은 피드백을 실제 브랜드 경험으로 구현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었다. 제품 자체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서 나아가 브랜드만의 세계관을 구축하고 이를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조언을 바탕으로, 이츠예가 지향하는 디자인 언어를 공간 전체에 담아냈다.

이 씨의 디자인은 개인의 기억과 한국적인 조형미를 출발점으로 삼는다. 2023년 쿠튀르 컬렉션 'It's Me, It's Yeah'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됐다.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고 한국의 문화적 배경을 살펴보던 그는 한옥의 기와와 창호에서 디자인의 실마리를 찾았다.

특히 기와는 이츠예의 디자인 철학을 보여주는 중요한 모티브다. 이 디자이너는 기와를 단순한 전통 문양이나 장식이 아니라 오랜 시간 공간과 삶을 지켜온 건축적 구조로 바라본다. 기와의 곡선과 반복, 겹침에서 발견한 조형적 요소를 의복의 실루엣과 가방의 패널, 장식과 디테일에 적용해 현대적인 오브제로 재해석한다. 기와가 지닌 구조적 아름다움에 시간을 견디며 기억을 보존한다는 의미를 더한 것이다.

전통 건축에서 발견한 구조적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은 가방을 만드는 방식에서도 이어진다. 가방을 단순히 물건을 담는 제품이 아니라 내부 공간과 외부 구조를 모두 갖춘 작은 건축물이나 조형물처럼 바라본다. 밀라노를 기반으로 유럽에서 생활하며 이탈리아 남성복 테일러링에 관심을 갖게 된 그는 오랜 시간 축적된 수트의 패턴과 제작 기술을 가방에 적용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서울서 감각 키우고, 밀라노서 브랜딩 익혀
한옥 기와·창호, 의복·가방 실루엣으로 표현
실용적이면서도 하나의 오브제로 완성해

한국의 역사, 디자인 언어로 재해석하고파
시간 지날수록 더 특별해지는 오브제 되길

그 결과 2026년 선보인 쿠튀르 라인 'Tailored to Carry'는 수트의 정교함을 가방이라는 입체적인 오브제로 확장했다. 2025년부터 이탈리아에서 샘플링과 테스트를 진행하며 가방의 외형뿐 아니라 패널의 분할과 곡선의 연결, 심지와 보강재의 사용, 봉제선의 위치, 손잡이와 스트랩의 구조까지 함께 설계했다.

이 디자이너는 "저에게 중요한 것은 정교한 조형성과 실제 사용성을 함께 갖추는 것"이라며 "그래서 이츠예의 가방은 실용적인 제품이면서도 하나의 오브제로 보일 수 있도록 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익숙함을 벗어나는 이츠예의 시선

이츠예의 창작 방식을 상징하는 오브제는 '체스 나이트'다. 다른 체스 기물과 달리 직선적인 경로에서 벗어나 움직이는 나이트처럼, 익숙한 패션과 오브제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가능성을 제안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그는 "나이트는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저와 이츠예의 창작 방식,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브랜드 오브제"라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출발해 밀라노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이 씨는 아직 브랜드가 성장 과정에 있다고 말한다. 다만 자신이 만들고 싶은 브랜드의 방향만큼은 분명하다. 제품을 많이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의 오브제에 시간과 이야기를 담아 사용자와 오랫동안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 디자이너는 "디자이너이자 창업가로서 계속 배우고 도전하며, 서울과 밀라노를 잇는 저만의 길을 만들어가겠다"며 "이츠예가 만드는 오브제가 유행에 따라 소비되고 사라지는 물건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사용자의 삶과 연결돼 더욱 특별해지는 물건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의 브랜드 이츠예는 '시간을 담는 오브제(Objects That Carry Time)'에 대해 계속 이야기한다. 누구나 자신의 삶과 기억을 담아갈 수 있는 물건,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지는 가치를 담은 오브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디자이너는 앞으로도 한국의 역사와 문화적 기억을 동시대의 디자인 언어로 재해석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전통 건축에서 발견한 곡선과 구조, 유럽 테일러링의 정교한 제작 방식도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지만 그의 작업 안에서는 하나의 디자인 언어로 연결된다. 서울과 밀라노, 패션과 오브제, 예술과 비즈니스를 오가는 시도는 이츠예라는 브랜드가 자신만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축구 김영권, '日활동 때 소득세 8억 부과' 불복 소송서 패소 /사진 뉴시스

▲최휘영 문체장관, 아시안패러게임 찾아 선수단 격려

▲손흥민, 골대 불운→평점 6.6…LAFC, 뉴욕과 1-1 무승부

▲잘 나가는 국중박, 국정감사 앞두고 분위기 뒤숭숭…왜?

▲"경복궁·덕수궁 달리고 메달 받자"…'광화문 뮤지엄런'

▲美 AI업체 한국어책 대량 구입 시도, 왜?…출판계 '비상'